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경향분석*

민원정(단국대)**

-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II.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 III.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연구 경향
- IV. 국내의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 V. 해외 학계 현황
- VI. 맺음말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국가이미지 향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다. 따라서 한국을 해외에 인식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을 연구하고, 해외에 한국학을 보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한국학 연구는 점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스페인 및 중남미 거의 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어의 위상을 생각할 때,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 지역에서의 한국학 연구 진작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02-072-BS2562).

** Won-Jung Min(Dankook University, minita@kornet.net), "Los datos y sobre los estudios coreanos en el mundo hispánico y la análisis de la tendencia".

을 것이다. 스페인어는 사용인구수 세계 3위의 언어이며, 스페인과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속한 스페인어 문화권은 지리적인 면에서도 방대하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한국학은 정치·경제·외교·통상·문화·학술 등 전략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스페인어 문화권은 지리적인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교류가 빈번하지 못했으며,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 또한 결여되어 있다.

80년대 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하에 출판 및 번역, 각종 학술 회의 등의 노력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한국학은 아직도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한국학이 지역별·언어권별로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앞으로의 한국학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고사하고라도, 한국인 이민 역사가 100년에 달하는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가 비록 소규모라도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을 소홀히 해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표출될 수 있다. 경제활동, 정치활동, 문화활동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학구적인 차원에서 한국어 및 한국음악, 미술, 역사, 정치, 경제 등의 문화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한국학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수집·정리하고 그 동안의 연구경향을 간략하게나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약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는 한국학 연구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앞으로의 한국학 연구진작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대산문화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스페인어문화권 소재 한국 및 아시아 관련 연구소 등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료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스페인어 문화권 한국학 학자들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과 서

점¹⁾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관련 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인터넷 이용시에는 한국 혹은 아시아 관련 연구소가 설치된 스페인어문화권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고, 서점은 국내에서 홈페이지 열람이 가능한 주요 서점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관련학자들과의 연락은 우선 체한연구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25통의 이메일 중 수신확인 된 이메일은 15통 정도였으며 이 중 7명의 학자들로부터만 답장이 왔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답장을 보내 준 학자들은 자신들의 한국학관련 저술 및 논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었으며, 다시 이들이 주변의 관련학자들을 소개해줌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II.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학의 개념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학’이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 한국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를 통칭하는 용어다. 영어로는 ‘Korean Studies’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의 번역으로는 한국학, 조선학, 고려학, 코리아학 등 여러 개가 사용된다.

한국학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를 통하여 유입된 서학의 자극을 받아 주자학이 돌보지 않던 우리 것, 내 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던 실학 시대부터 발아하기 시작하여 줄곧 실학자들에 의

1) Librería Santa Fe, <http://www.lsf.com.ar>
 fnac, <http://fnac.es>
 Librerías Gandhi, <http://www.gandhi.com.mx>
 Casa del Libro, <http://www.casadellibro.com>

하여 계승되었다. 그 후 한말 서구열강제국의 일본에 대항하려는 민족주의적 주체의식이 형성되었고, 1930년대에 들어와 각 신문, 잡지에 조선학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면서 조선학이 성립되었다. 당시 육당, 춘원을 비롯하여 단재 신채호와 호암 문일평에 의해 쓰여졌던 조선학은 해방 후 국학으로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이는 나라가 독립하여 우리 나라의 학문이란 뜻에서 국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학이라는 명칭에는 주체가 분명치 않고 배타적 민족주의/국수주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60년대 민족근대화의 활발한 발전기에 접어들자 국학 대신 한국학이란 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학을 국학의 개념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켜 한국의 특징적이고 전통적인 문화, 즉 협의적으로 국문학, 국어학, 국사학이 중심 되는 학문이라 하였다. 또는 해외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위 한국학(Korean Studies, Koreanology)이라는 지역연구(Area Studies)의 개념으로서의 한국학, 즉 광의로 한국과 한국민족의 고유한 문화정체를 인문·사회·과학 등 문화일반에 관하여 과학·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활동을 한국학이라 하였다(이혜경, 1994: 6). 이렇듯 국내 학자들간에 논란되어 오던 한국학은 80년대 들어 국내·국외인 모두에 의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정체에 대하여 종합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성립하게 된다.

오늘날의 한국학은 전통문화의 자각과 계승, 창조를 위주로 하는 국학개념의 한국학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문화의 전반을 이해하고 알리고자 하는 해외에서의 한국학으로 대별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삼국시대의 국학, 조선 중기시대의 실학, 1930년대 일본 식민지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조선학, 50년대의 국학으로 계승된 오늘날의 국문학, 국어학, 국사학을 중심학문으로 하는 전통주의적 한국학이다. 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일부로 등장하면서 50년대 이후 근대적인 과학·실증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대상으로서의 한국학이다. 반면 1950년대 이후 지역연구의 성격을 띠고 해외의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연구

는 ‘한국학(Korean Studies, Koreanology)’이라 통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한국학 연구 추세는 한국만 독자적으로 놓고 소개하기보다 한국과 외국을 비교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연구하는 철학.역사.문학.민속 등 모든 분야도 원칙상 한국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를 한국학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한국인의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는 범위를 좁혀 국학(國學)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학은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한국학이란 용어는 외국인을 전제로 해서 쓰일 수밖에 없다. 한국학은 본질적으로 국학의 정신적 계승이지만, 국학에 ‘한’이 추가됨으로써 미국학, 중국학 등과 같이 독립해서 존재하는 학문이라는 국가 단위의 개념을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학.중국학 등과 같은 지역학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학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한국학이란 ‘한국문화’를 개념화시키고 한국문화가 가지는 의미와 연원을 밝히는 학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국학’이라는 용어는 ‘우리 고유의 문자나 언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세계 속의 타문화와 국가들과의 관계’로서의 한국학, 그리고 ‘세계 각국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국문화’라 할 수 있고 스페인어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의미에서의 한국학을 의미한다.

2. 한국학 연구의 현황

한국이 서구 세계에 알려진 후 서구인에 의한 한국 연구는 19세기 중엽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의 한국 연구는 선교사, 외교관, 여행가, 탐험대 등에 의해 작성된 조사 또는 보고서식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이들의 연구 성과는 학문적 연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1950년대 한국전쟁 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과학.

실증적인 한국학이 소수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70.8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해외 이주민 증대 등에 힘입어 현재 세계 33개국 188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한국학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한국학 연구 경향은 그 차이가 심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특성을 띠고 발전해 왔으나 애석하게도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 연구는 여타지역에 비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자료 또한 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문제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한국학이 한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불균형 또한 심각한 편이며 스페인어 문화권에서는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역간 불균형, 그리고 치우친 학문 연구 성격의 원인으로는 해외에서의 한국학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열세인 탓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차지하는 지역적 중요성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미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해외 한국학 전문가와 도서 및 연구자료, 그리고 공동연구기회,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단기과정 등이 부족한 데에도 기인한다.

해외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국내에서 인재양성에 힘써야 하는데, 그 동안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기비하적 인식과 경제발전 제일주의와 서구화 지상주의의 만연, 한국학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학문분과간의 대립.갈등의 심화, 또한 유일의 한국학 인재양성 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이 학문적 리더쉽을 획득하지 못한 문제 등에 따라 해외 한국학 전문가가 질적.양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의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인재양성에 있어서

도 고전자료 해독능력의 어려움, 한국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부족,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한국학 교수요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 사회적 수요의 한계,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제도적 미비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도서와 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도 영어나 일어로만 되어 있어 타문화권 학자들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스페인어 문화권은 국가적 관심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문화권에 대해 공부하는 국내 학자들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III.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 연구 경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한국학은 과연 ‘한국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찰에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발전해 왔다. 비록 미약하기는 하지만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이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나마 한국학과 관련된 강의가 개설된 적도 있었고, 여러 시도가 있기도 하였다. 다음에서는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연구된 한국학관련자료를 정리·분석해 보고자 한다.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이를 통해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의 경향을 알 수 있고 어느 부분에 국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학과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이 출판되기 위하여서는 국내의 지원과 국외의 연구소나 학과 설치 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리·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을 정립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표 1>은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한국학 관련 연구현황을 조사하여 종류별·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한국학 관련 연구현황²⁾

분류		논문		단행본	번역본	미제본 및 미출판	계
		학술지	발표문				
인문	문학	5	0	6	26	0	37
	어학	1	0	0	0	0	75
	철학	0	0	1	0	0	151
사회	정치	10	6	1	0	2	19
	경제	2	11	3	0	4	58
	국제관계	7	7	6	0	0	136
	역사	1	2	1	0	0	276
	사회학	0	0	0	0	2	554
	언론학	0	0	0	0	1	1,109
	법학	0	0	0	0	1	2,219
	인류학	3	0	5	0	1	4,447
기타	종교	1	0	2	0	1	4
	예술	2	0	1	0	3	14
	군사	0	1	0	0	0	29
	스포츠	0	0	3	0	0	61
	관광	0	0	1	0	0	123
	한국전반	0	9	3	0	3	261
총계		0	16	6	9	26	3

위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집된 자료는 총 145편으로, 이 중 논문이 68편, 단행본이 33편, 번역본이 26편, 미제본 혹은 미출간된 자료가 18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치, 경제, 역사에 관한 신문기사가 각각 1편씩 수집되었다.

한국문학작품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경우는 총 26권으로, 모두 스페인, 멕시코, 페루에서 출판되었다. 번역연도를 살펴보면 83년 1편, 94년 1편, 95년 2편, 96년 2편, 97년 5편, 98년 2편, 99년 4편, 2000년

2) 학문분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체한연구펠로십 논문의 학문적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고, 해당학문이 없는 경우 저자가 분류하였다. 단행본, 미출판, 미제본 등의 분류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자료에 나타난 분류를 참고한 것이다.

4편, 2001년 5편, 그리고 연도미상이 2편이었다. 1990년대 이전에 번역된 작품은 단 한 편이고, 나머지는 모두 1990년대 중.후반부터 번역·출판되었다는 것은 90년대 이후 증가한 한국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이 시기 한국 학자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문학작품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경우, 번역자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출판 기관도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이 있는 곳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번역자의 경우 모두 24명³⁾이나, 7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번역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번역이 일부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전반에 관한 책들 중 한국에 대해 소개한 책들의 경우, 분야도 예술·역사·종교 및 문학에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 그 분야에 관한 관련서적도 한 권에 그친 경우가 많아 스페인어 문화권에 한국을 소개한 책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중 2권은 '88 서울 올림픽 때 안내서로 출판된 서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회성 소개서보다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또 분야별로 알릴 수 있는 소개서의 출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판된 책들도 연도간 차이가 너무 커서⁴⁾, 급변하는 한국사회를 알리기에는 역부족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대부분 아시아나 일본 등과 묶여 소개된 경우가 많아, 한국 및 한국학을 독자적으로 기술한 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번역 작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0년대 말 이후 서적수가 증가하였다. 서적 중에는 한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소개한 작품도 있었지만, 아시아의 기타 국가들과 함께 소개된 서적들도 많아서, 앞으로 한국 및 한국학에 대해서만 다룬 서적들의 출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정치, 스포츠, 경제, 관

3) 고혜선, 권은희, 김승기, 김은경, 김진수, 김창환, 김현창, 모지웅, 민용태, 서성철, 송병선, 유해명, 윤선미, 윤준식, 이승재, 정권태, 추원훈(이상 가나다 순), Ana Lucio, Bárbara Baumgartner, Francisco Carranza, Raúl Aceves, Mario Alonso Arango, Paciencia Ontañón de Lope, Otón Moreno(이상 무순).

4) Lee Ki Baik, *Nueva Historia de Corea*, Editorial Eudeba, 1988, Hyun-chang Kim,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 Madrid: Editorial Universidad Complutense, 1988, Yong-un Han, Jong-ju So, otros, traducido por Yong-tae Min, Raúl Aceves,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 México: Editorial Aldus, 2001.

광, 문학, 종교, 철학 등이 있으며, 경제의 경우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스포츠의 경우에는 태권도와 관련된 서적이 많았다.

한국 및 한국학 관련 논문은 총 68편이었고 이 중 지난 3년간 스페인에서 개최된 유럽한국학회⁵⁾에서 발표된 논문이 총 31편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출판된 한국관련논문의 경우, 한국문학작품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학 연구자의 수가 무척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논문 작성자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논문의 분야 또한 작성자의 전공에 따른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논문 및 서적을 분류별로 정리해 보면, 문학, 어학, 철학, 정치, 경제, 국제관계, 역사, 사회학, 언론학, 법학, 인류학, 종교, 예술, 군사, 스포츠, 관광, 한국전반 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문학의 경우 총 36권 중 26권이 한국문학작품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것이고 정치 및 경제, 국제관계에 관련된 논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현재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실제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가 정해져 있고, 이들 대부분이 사회과학 전공자들이며, 따라서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 또는 한국학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한국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전무할 뿐더러 이들의 논문 또한 단순한 소개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한 경우도 많아 실제 분류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지식 부족은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한국학 관련 서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이들 논문의 대부분이 이베로아메리카지(*Revista Iberoamericana*)⁶⁾(8편)

5) el primer simposio, 2000, 11, 29-30,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Madrid.
el segundo simposio, 2001, 11, 21-22, Sociedad, Economía y Política en Corea, Madrid.
el tercer simposio, 2002, 11, 26-27, Señas de Identidad Coreana, Madrid.

6) <http://plaza.snu.ac.kr/~iberoam/english/publications/publications.html>.

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연구(*Estudios de Asia y Africa*)⁷⁾(9편)에,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3차례의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31편)에 편중되어 실려 있었고, 논문의 경우에도 8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말 이후부터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문기사 3편은 모두 아르헨티나의 곤살로 파스(Gonzalo Paz) 박사가 보내 준 자료들로 자신이 신문에 기고한 기사의 제목과 출처, 기사 게재 일자를 비교적 상세히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되었으나 기사의 수가 너무 작고, 수집되지 않은 여타 자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출판 혹은 미제본된 서적의 대부분은 체한연구펠로쉽으로 작성된 논문⁸⁾이었는데, 이들 논문은 원제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연구자들의 체한연구 당시와 현재 근무처가 바뀐 경우가 많아, 앞으로 한국학관련 연구자들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논문에 관한 심층분석은 다음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IV. 국내의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세 곳 모두 스페인어 문화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그 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1.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학술정보를 전세계에 보급하고, 한국학 전문학자를 양성하며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7) Colegio de México, México.

8) 부록 1 참조.

증진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도력과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한국학 강사 파견, 연구지원, 회의지원, 학술지발간 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각 지원 사업은 동 재단의 국제교류사업 내 해외한국학지원사업으로서, 각 지원분과별로 각 재외공관에 공문을 파견하여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록 올 해외한국학파견강의교수 모집 공고는 총22개국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냈는데, 이 중 스페인어문화권 국가는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의 지원이 기대되며, 해외한국학연구자정보의 국가별 현황 통계정보에 따르면 스페인어문화권 국가로는 멕시코 1명(남)이 유일하다.⁹⁾

2.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해외한국학연구자료지원, 한국연구펠로십, 한국어펠로십, 해외인사초청, 연례포럼, 해외박물관 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고, 2003년에는 세계 각국의 한국학 관련 학자, 전문가, 학생들의 활동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는 영문웹사이트(<http://www.koreanists.net>)¹⁰⁾를 개설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조사에서도 한국학교수직설치현황이나 한국연구 강좌운영 지역별 현황, 해외한국연구자료지원, 한국어연수펠로십지역별분포, 연례포럼사업개최실적, 해외박물관내 한국실 설치지원 등에서 스페인어문화권 국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정기간행물 코리아나(KOREANA)가 90년부터 98년까지,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스페인어판으로도 발행되고 있으며, 체한연구펠로십 지역별 분포에서 스페인어문화권 국가 출신 학자들의 논문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는 PDF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상의 논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코리아나(KOREANA) 웹사이트(<http://www.koreana.or.kr>)에서 Search 메뉴로 들어가면 코리아나 자료보관실(KOREANA Archives) 1987-2000을 이용

9) <http://www.krf.or.kr/KSapp/Stastic.do?command=nation>.

10) 이하 '영문웹사이트'로 칭함.

할 수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이 외에도 2000년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한국학관련학회를 후원하고 있다.

체한연구펠로십의 지원분야는 인문.사회과학.문화.예술 분야의 한국학 또는 한국관련 비교연구로 재단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별도로 정한 지원자격에 따라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체한연구펠로십으로 작성된 논문¹¹⁾은 총 13편인데 원제목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스페인어 문화권의 학자들이 작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어로 작성된 경우가 8편이나 있었다. 연도별로는 92년이 1편, 93년이 4편, 94편이 3편, 95년 1편, 96년 1편, 97년 1편, 그리고 2000년이 2편이었고 2000년 이후에는 기록이 나와있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분야가 다양하고(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예술, 법학 등) 국적도 다양한 편이므로(에콰도르, 페루, 스페인, 아르헨티나, 쿠바 등) 이어지는 연구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행본으로 출판된 논문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문/미제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과 2000년도 이후의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자료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체한연구자들의 이메일 협조가 절대적이었는데, 이는 이들이 체한연구 후에도 한국 및 한국학에 대해 갖고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대다수의 연락처가 당시와 바뀐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 또한 제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사료된다. 또한 체한연구펠로십의 전공 및 지원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연구수행이 가능한 사람이 지원토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기간도 3개월에서 12개월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원가능한 언어권 및 전공분야를 확대하여 지원자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문웹사이트에 나타난 스페인어문화권의 한국학관련학자들을 국가별로 살펴보면¹²⁾ 아르헨티나의 코리나 쿠르티스(Corina

11) http://www.kofo.or.kr/korean/files/fellow_report.html, 부록 참조.

Courtis)¹³, 호르헤 라파엘 디 마시(Jorge Rafael Di Masi), 파비오 노르베르토 파리네야(Favio Norberto Farinella), 릴리아나 가르시아 다리스(Liliana García Daris)¹⁴, 오라시오 알프레도 구스타비노(Horacio Alfredo Gustavino), 콘스탄사 루스타우(Constanza Loustau), 파트리시아 베아트리스 파파(Patricia Beatriz Papa), 곤살로 세바스티안 파스(Gonzalo Sebastián Paz)¹⁵, 실비아 리바라(Silvia Rivara)¹⁶, 호르헤 산타로사(Jorge Santarrosa), 하이메 이삭 실베르(Jaime Isaac Silbert), 라울 레오폴도 템페스타(Raul Leopoldo Tempesta), 볼리비아의 파트리시아 이사벨 카스트로 고이티아(Patricia Isabel Castro Goytia), 콜롬비아의 클라라 이네스 알폰소 디아스(Clara Inés Alfonso Díaz), 가브리엘 카르도나 보테로(Gabriel Cardona Botero), 하이로 알리리오 메사 로페스(Jairo Alirio Mesa López), 가브리엘 수아레스(Gabriel Suárez), 쿠바의 호세 아리오사 페레스(José Ariosa Pérez)¹⁷, 에쿠아도르의 파블로 바리가(Pablo Barriga), 비비아나 말도나도(Viviana Maldonado)¹⁸, 엘살바도르의 프란시스코 아얄라(Francisco Ayala), 멕시코의 상헤 정(Sanghye Chung), 알레한드로 에스칼로나(Alejandro Escalona)¹⁹, 형주 김(Hyongju Kim), 마리아 카롤리나 페나-브루네(María Carolina Pena-Brunet)²⁰, 알프레도 로메로 카스티야(Alfredo Romero Castilla), 빅토르 에드가 산체스(Victor Edgar Sánchez), 알폰소 바스케스 데 라라 사아베드라(Alfonso Vázquez de Lara Saavedra)²¹, 페루의 마르타 이레네 바리가 테요(Martha Irene Barriga Tello), 호르헤 에르네스토

12) <http://www.koreanists.net>.

13) Researcher & Assistant Prof., Socio-Cultur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Buenos Aires.

14) Professor, School of Oriental Studies.

15) Associate Professor, Korean and Northeast Asiatic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Cordoba.

16) Asian Studies Department, Universidad del Salvador.

17) Researcher, Center of Studies on Asia and Oceania(CEAO)/Korean Language, Kim Il Sung University, 1990.

18) Undergraduate Student, Philosophy Studies, Catholic University/Assistant, Korean Embassy in Ecuador(1995)

19) Graduate Student(M.A), Korean Studies, El Colegio de México.

20) Graduate Student(M.A), Korean Studies, El Colegio de México.

21) Graduate Student(M.A), Korean Studies, El Colegio de México.

부스티오스(Jorge Ernesto Bustios), 하비에르 프룻첼 데 아맛(Javier Protzel de Amat), 스페인의 호세 엠 브라냐스(José M. Brañas), 산티아고 카스티요(Santiago Castillo)²²⁾, 에르네스토 데 라우렌티스 오레요(Ernesto de Laurentis Ollero)²³⁾, 프란시스코 가르시아-블란치(Francisco García-Blanch), 마리아 테레사 곤살레스 비카리(María Teresa González Vicari), 알바로 이달고 베가(Alvaro Hidalgo Vega), 콘셉시온 마디코 모르(Concepción Madico Mor), 알폰소 오헤다(Alfonso Ojeda)²⁴⁾, 우루과이의 헤라르도 프라토(Gerardo Prato)²⁵⁾ 등인데, 이들을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스페인어문화권 한국학 관련 학자들의 국가별 분류

국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페루	스페인	우루과이
인원	12	1	4	1	2	1	7	3	8	1

위 표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한국학 관련 학자의 수가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현지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관심은 기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페인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유럽한국학회의 영향으로 비교적 관련 학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웹사이트에 나타난 자료는 좀더 구체적이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 상세자료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 전공, 학력, 경력, 출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전공과 학력 그리고 경력 사항 중 어느 것에서도 한국학과 연관된 면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 한국학 관련 학자라 할지라도 출

22) Reporter(ASIA), International Department, EFE Agency/Radio Korea International, Spanish Department for Latin America(1988), KBS(1988-1989).. etc.

23) Editor, Audiovisual y Prensa, SA/Secretary, Spanish Centre of Korean Reserach, 2000~

24) Director, Spanish Centre on Korean Research(CEIC),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25) Third Secretary & Consul, Embassy of Uruguay

판사항에 기존 자료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이메일 주소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에콰도르의 경우 2명 중 1명은 학부생이고, 멕시코의 경우에도 7명 중 3명이 대학원생이라는 점에서 아직 이들을 한국학 관련 학자로 부르기 시기상조인 점도 있고, 또한 현재 한국 주재 우루과이 대사관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한국학 연구자의 직업이 ‘우루과이 대사관 영사’로 기록되어 있는 등 기록상의 오류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체한연구논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등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이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 또한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03년 한국어 지원사업 확대안을 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Universidad Aut3noma de Barcelona)의 한국학 강좌운영지원,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중남미한국학회의지원,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Universidad de Salamanca)의 한국어교재개발지원, 제4차 유럽한국학회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²⁶⁾의 경우는:1997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멕시코 한국문학 심포지엄”, 1999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고은 시인 멕시코 시낭송회 및 출판기념회”,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국-멕시코-쿠바 문학교류” 등의 행사가 있어왔고, 해외한국문학연구지원출판도서나 한국문학번역지원 등에서 한국문학작품을 스페인어로, 또 스페인어문화권 문학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학 강좌개설대학에 서적을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어 문화권이 몇몇 대학, 일례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학교와 멕시코의 콜레히오 데 메히코(El Colegio de México)가 이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였다.

26) <http://www.daesan.or.kr/books/korean/english/main.htm>.

대산문화재단의 세계문학총서를 보면 □페리키요 사르니엔토□ 1, 2(José Joaquín Fernández de Lizardi, 김현철 역, 2001년 6월 5일, 문학과 지성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어느 계단의 이야기□(Antonio Buero Vallejo, 김보영 역, 2002년 1월 21일, 문학과 지성사) 등이 있다.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번역지원은 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 등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문학번역지원으로 출판된 스페인어문화권 도서로는 1995년 제3회에 □바람의 넋□(*El espíritu del viento*, 오정희 작, 고혜선·프란시스코 카란사 로메로(Francisco Carranza Romero) 역, 1997년, El Colegio de México)과 □죽지 않는 도시□(*La ciudad inmortal*, 이형기 작, 정권태·라울 아세베스(Raúl Aceves) 역, 1998년, Universidad de Guadalajara), 1996년 제4회에 □신라초□(*Epítome de Sil-La*, 서정주 작, 김현창 역, 1997년,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과 □고은 시선집□(*Fuente de Llamas*, 서성철·파시엔시아 온타논 데 로페(Paciencia Ontañón de Lope) 역, 1999년 El Colegio de México), 1999년 제7회에 □도스토예프스키□(*Poseído por Dostoievski*, 도스토예프스키 저, 윤선미·김승기 역, 2001년 Bassari) 등 5권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0년 이후에는 스페인어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에서도 번역지원을 받은 작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경우에는,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에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 ‘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학 연구’, ‘아세아 각국의 한국학 연구현황’, ‘소련과 동구에서의 한국학’, ‘소련에 있어서의 한국학’, ‘독일한국연구협회와 동구의 한국학’, ‘국내에서의 한국학연구의 실태’ 등의 논문이 실려 있으나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와 관련된 연구는 실려 있지 않다.

제3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84년 6월 28일~29일)에는 발표자 9개

국 15명 중 스페인인 1인이 포함되어 있고, 2001년 8월 31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 경제학부 행정법 교수이자 스페인 한국학연구센터 소장인 알폰소 오헤다(Alfonso Ojeda) 교수가 초청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의 21세기 도전, 한반도 통일, 한국의 개혁추진,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 한반도 통일 전망 등의 한국문제 관련 논문을 저술하고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관계에 관하여 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2년 열린 제1회 세계 한국학/조선학/코리아학대회에서 스페인어 문화권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2002년 11월 개최된 제3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중아시아의 한국어교육’, ‘동남아시아의 한국어교육’,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아프리카의 한국어교육’, ‘대양주의 한국어교육’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나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국내에서 열린 이상의 학회의 경우, 발표자들 중에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발표를 한 학자들도 있었지만, 기타 아시아관련연구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영어로 발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주요 학회에서 스페인어 문화권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국내의 무관심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 한국학을 연구하는 스페인어 문화권 학자들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한국학 연구가 지역별·언어권별로 편중된 상황에서 그나마의 자료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가와 이 지역 한국학 연구의 열악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V. 해외 학계 현황

그럼 과연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왔는지,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들 중 스페인을 제외하고 한국학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꼬르도바대학교(Universidad de Córdoba)가 그 시초라 할 수 있고 살바도르대학교(Universidad del Salvador)에는 “알 피 아스마엘 킬레스 에스 제이” 동양학연구소(Escuela de Estudios Orientales “R. P. Ismael Quiles S. J.”)가 설치되어 있다. 이스마엘 킬레스(Ismael Quiles)는 실제 한국을 수 차례 방문하고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곳에서는, 1991년 대한불교회 회장 서경박사 방문, 1999년 9월 28일 김원호 박사 초청특강, 1999년 11월 2일 경창휘 한국 대사의 “오늘의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강, 2000년 5월 23일 한국대사관 양기택 문화공보관의 “한국의 교육제도”라는 제목의 특강, 그리고 아르헨티나 한국어 교육기관(Insituto Coreano Argentino (ICA)) 관장의 “ICA의 경험”에 대한 영어와 스페인어 발표 등의 행사가 있었으나 연구소에서 발간된 학술지 등에 한국과 관련된 논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플라타대학교(Universidad de la Plata)의 국제관계연구소(El Instituto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IRI)_ 1994년 “한국 그리고 한국의 국제 편입”(“Corea y su inserción internacional”), 1995년 “오늘날의 대한민국공화국”(“La República de Corea Hoy”) 등의 행사가 있었고, 논문으로는 국제관계연구소지(*Revista del Instituto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에 1995년 호르헤 라파엘 디 마시(Jorge Rafael Di Massi)의 「한국,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정치협력」(“Corea y la Coordinación de Políticas en la región Asia Pacífico”)가 있다.

현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Universidad de Buenos Aires)와 플라타대학교(Universidad de la Plata)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가 활성화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들이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중남미 최초의 한국학 학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2. 페루

페루의 카톨릭대학교(Pontífic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의 동양학센터(Centro de Estudios Orientales)에서는 1994년 □마음의 감옥□(*La Cárcel del Corazón*), 1996년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El pescador no tala*, 김주영 작), 1996년 □한국현대시선집□(*El tiempo transparente*), 1998년 □황동규 시선집□(*Posada de Nubes y otros poemas*) 등의 한국문학을 번역·출판하였다. 그러나 이들 4권의 책의 번역은 모두 고혜선, 추원훈, 프란시스코 카란사 로메로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 중 카란사 교수는 4권 모두에 공동번역자로 참여하였다.

3. 멕시코

멕시코의 콜레히오 데 메히꼬(Colegio de México: COLMEX)에는 아시아아프리카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곳에는 1995년부터 한국파트가 따로 분류되어 있고, 초청교수인 호세 루이스 에스트라다(José Luis Estrada) 교수가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한국인 김형주 교수가 언어, 문학, 문화를, 역시 초청교수인 후안 펠리페 로페스 아이메스(Juan Felipe López Aymes) 교수가 한국 경제를, 그리고 알프레도 로메로(Alfredo Romero) 교수가 한국정치와 국제관계, 그리고 현대사를 강의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발간되는 잡지인 *아시아아프리카연구(Estudios de Asia y Africa)*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유럽한국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제외한 주요 논문은 모두 이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한국학 강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곳이다.

4. 스페인

유럽한국학회 AKSE(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의 활

동을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학회 및 학술지 발행 등을 해 왔으나 애석하게도 스페인의 참여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Centro Español de Investigaciones Coreanas(C.E.I.C)와 Asociación Española de Estudios del Pacífico(A.E.E.P), Colegio Mayor Universitario Nuestra Señora de Africa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한국협회세미나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한국학 관련학회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인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3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발표논문은 모두 학회 주제 명으로 출판되었고 2003년 11월에도 스페인에서 한국학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학회 중심 연구자는 알폰소 오헤다(Alfonso Ojeda)와 에르네스토 데 라우렌티스(Ernesto de Laurentis), 그리고 알바로 이달고(Alvaro Hidalgo) 등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도 이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

스페인한국협회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중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의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면 제1회 세미나에서는 11편, 제2회 세미나에서는 9편, 그리고 제3회 세미나에서는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Ernesto de Laurentis Orello, Alfonso Ojeda, Alvaro Hidalgo 교수는 학회의 중심인물답게 3차례 모두 논문을 발표하였고, 2차례 이상 발표한 학자들도 4명이나 되었다.

또한 바르셀로나대학교의 CEII(국제연구 및 국제문화 연구소, Centro d'Estudis Internacionals i Interculturals, Centro de Estudios Internacionales e Interculturales)에서는 José Manuel Brañas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CIDOB 재단(바르셀로나 국제관계 및 국제협력 센터, Centro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y Cooperación Internacionales de Barcelona)²⁷⁾에서는 2003년 연감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에 관한 전문연구를 출판할 것이라고 한다.

27) <http://www.cidob.org/index.html>.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 한국학은 확고한 지역학문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한 상태이고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은 시작조차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한국학 연구가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학의 주체인 한국에서 해외 한국학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기본방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구미 각국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무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인데 의존하는 한국학 연구방향은 지양되어야만 한다. 앞으로 한국학의 주역인 한국이 해외 한국학의 연구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을 근간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외 한국학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의 한국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하고,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언어와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형평성을 이루어 지원하는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아래 한국학 관련 학자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타문화와의 연관 속에서 자국학을 연구해 봄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몇 개의 전공에 국한된 폐쇄적 연구가 아니라 학제간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비록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를 시작하기 전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산발적인 연구 결과물들이 있었던 바, 이들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정리한 자료들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학작품 번역의 경우 대부분의 번역이 일부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내 학자들의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문학작품 번역은 주로 대산문화재단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이 확대된다면 지원자와 작품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소개서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또 분야별로 알릴 수 있는 소개서의 출판이 시급하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이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책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한국 또는 한국학을 독자적으로 기술한 책들이 필요하다. 논문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몇몇 잡지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 혹은 한국학 연구소가 설치된 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스페인어 문화권 한국학 연구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질적·양적으로 자격을 갖춘 해외한국학인재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스페인어 문화권 학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유발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페인어 문화권의 한국학 연구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한국학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관련 논문 및 저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더욱이 한국학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한국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이로 인해 이들 학자들의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 및 후속세대에게 한국어를 교육함으로써 이들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연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자의 수가 몇 안 되는 점을 생각해볼 때, 후속세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이들이 앞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경우 해외한국학과건강의교수 모집에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페인어문화권 국가의 지원 또한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 지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국제교

류재단의 경우 체한연구펠로십으로 한국에 체류했던 학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체한연구논문들이 미제본 혹은 미출판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고, 이들 학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 학자들에 대한 후관리, 그리고 논문 검색 또한 가능해져야 할 것이며, 이들의 연구가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영문웹사이트에 나타난 자료들을 좀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성이다. 기록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며 논문 및 서적을 정리해서 올려야 한다고 사료된다. 대산문화재단의 경우 한국문학번역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적지원 등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경우에는 한국학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스페인어 문화권 학자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학자들의 스페인어 문화권 국가에 대한 연구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상의 제안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스페인 및 중남미권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한국에 관한 서적 및 한국 문학 작품의 번역, 그리고 스페인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등은 모두 스페인어를 전공한 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페인 및 중남미에서 개최되는 한국학 관련 학회에 참여하여 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일 또한 전공자들이 몫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외 학계 현황 분석시 나타난 문제점은, 우선 아르헨티나의 경우 살바도르대학교, 플라타대학교,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코르도바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남미 최초의 한국학 학회를 개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Colmex의 *아시아/아프리카연구(Estudios de Asia y Africa)*등에 게재된 한국학 관련 논문을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관련된 논문과의 질적.

양적 비교 또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스페인의 한국협회세미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경향분석도 중요한 일이다.

비단 자료의 수집 및 정리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되었던 한국어 또는 한국학 관련 강좌들을 조사하여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는데, 아르헨티나의 살바도르대학교의 동양학 연구소 및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Universidad de Buenos Aire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의 일환으로 개설된 한국어강좌는 대학의 정식 학과목이 아니었다는 한계에 부딪쳐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더욱이 현재 아르헨티나가 처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한국학은 활성화되기 힘든 상태다. 페루의 카톨릭대학교(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의 동양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Orientales)에서는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출판 이외에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어강좌를 진행하였는데 적절한 강사 확보의 실패 및 학생들의 동기유발 미비로 인하여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한국학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멕시코의 Colegio de México(COLMEX)에는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곳에는 1995년부터 한국파트가 따로 분류되어 있고, 이 곳에서 발간되는 잡지인 *아시아아프리카연구(Estudios de Asia y Africa)*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던데 반하여 역시 멕시코의 UNAM(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에서는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1970년대 한국어강좌를 시작하였으나 한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생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곧 폐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한국학 관련 강좌를 조사하여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서적 및 논문을 분야별로 조사하여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또한 한국문학 작품을 스페인어 문화권에 알리려는 전공자들의 노력 또한 뒤따라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스페인어 문화권의 한국학 관련 기초자료수집은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국학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 및 한국학 관련 국내·외 인재양성, 그리고 타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세계화와 학제간 접근방법을 통해 이 지역의 한국학 정립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학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행한 점은 80년 중반 서울올림픽 당시 일회성에 그쳤던 한국학 관련 서적 및 논문의 출판이 90년대 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문웹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국학관련 학자들의 국적도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학자들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서적 및 논문의 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국내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 및 현지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ppendix

부록 1. 체한연구펠로십으로 작성된 스페인어문화권 학자들의
논문(국제교류재단자료)²⁸⁾

연도	제목	이름	연구주제	출판사	출판연도	국가	언어	형태	분야
92	멕시코 한인 이민사: 1905~1990	Alfredo Romero-Castilla	한국과 라틴아메리카간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관계	멕시코 국립자 치대	1993	멕시코	영어	논문/미제본	사회학
93	A Study on the Marital Types and Predicting Psycho-Social Variables in the Healthy Marriage among the Korean Urban Couples	송정아	한국인의 결혼생활 만족도			아르헨티나	영어/국어	논문/미제본	사회학
93	남미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미술	Pablo Barriga	한국의 미술			에콰도르	서반아어	논문/미제본	
93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나타나는 역사·문화 및 인적요소	Jorge Bustios	한국인의 문화와 심리			페루	영어	논문	
93	한국의 대중예술과 종교: 페루와의 비교	Martha Barriga Tello	한국의 예술과 종교			페루			
94	한국의 통일: 스페인 인(人)의 관점	Alfonso Ojeda	남북한 대화와 통일전망 및 한국 경제성장 연구	마드리드대학교	1995	스페인			
94	Korea & the Policy Coordin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Jorge Rafael Di Masi	한국의 산업엘리트와 국가의 정치관계 변화	국립 La Plata 대학교		아르헨티나	영어	논문/미제본	경제학

28) http://www.kofu.or.kr/korean/files/fellow_report.html.

94	Mass Culture & Education in Contemporary Korea: An Essay on Mentalities & Attitudes From a Peruvian Outlook	Javier Protzel de Amat	한국의 대중매체와 문화적 정체성	리마대학교	1995	페루	영어	논문/미제본	언론학
95	The Sculpture of the Kingdom of Shilla	Maria Teresa Gonzalez Vicari	신라 조각미술 연구			스페인	서반아어	논문/미제본	예술
96	South Korea: notes on its economic growth	Ariosa Perez, Jose	2000년을 향해 출발한 대한민국의 경제			쿠바	영어	논문/제본	경제학
97	Legal System on Patents: Brazil, Argentina & Korea	Farinella, Favio Norberto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교역관계 연구			아르헨티나	영어	논문/미제본	법학
00	Reginal Economic Cooperation: the Argentinian & Korean Experiences in the MERCOSUR & APEC Cases in the Last Decade	Raul L. Tempesta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지역 협력통합 전략비교 연구			아르헨티나	영어	논문/미제본	경제학
00	① Construcciones de Alteridad ② Linguistic Ideology at Work: Language as a Problem for the Social Inser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Buenos Aires	Corina Courtis	총체적인 이민 시나리오: 아르헨티나의 한국인들 사회문화적인 배경 재고			아르헨티나	서반아어	① 단행본 ② 논문/미제본	인류학

부록 2. 스페인어문화권 한국학 관련자료

1-1. 학술지 게재논문

1-1-1. 문학

Maeth Ch, Russell(1987), “Sobre “La escritura del Este de Asia””, *Estudios de Asia y Africa* 71, Vol. 22 Enero-Marzo, Número 1, Colegio de México.

_____ (1989), “Sobre “La escritura del Este de Asia”(segunda parte)”, *Estudios de Asia y Africa* 78, Vol. 24 Enero-Abril, Número 1, Colegio de Pérez Blanco, Lucrecio, “El So Jong-Ju que yo conozco”, *Revista Iberoamericana*, Issue No. 7. México.

Romero Castilla, Alfredo(1980), “Human Rights Publishing Group, The Middle Hour, Selected poems of Kim Chi Ha”, reseña de libros, *Estudios de Asia y Africa* 46, Vol. 15 Octubre-Diciembre, num. 4.

Hwang, Tae-jun(2001), “La poesía clásica coreana Shijo: la gran armonía entre hombre y naturaleza”, *Estudios de Asia y Africa*, 114, Vol. 36 enero-abril, núm. 1, Colegio de México.

1-1-2. 어학

José Alvaro Porto Dapena, “Los consonantes en coreano y español”, *Revista Iberoamericana*, Issue No. 7.

1-1-3. 정치

De Laurentis Orello, Ernesto(2002), “Los sucesos de Kwangju. El Tiananmen coreano”, *Historia* 16, ENE:25(309), <http://www.ucm.es/BUCM>.

Ojeda Marín, Alfonso(1998), “Democracia y sociedad en la República de Corea”, *Meridiano CERI*, Madrid, diciembre, pp. 23-26.

_____ (1995), “La reunificación de la península coreana”, *Ensayos y Estudios sobre Corea*, A.E.C.I.E.C. y Embajada de Corea, Madrid.

_____ (1998), “Las perspectivas de reunificación en Corea”, *Desarrollo, Revista de la Sociedad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núm 27, pp. 46-50.

_____(1997), "Reformas en Corea", *Revista Política Exterior*, Vol. XI, núm 59 septiembre-octubre, pp. 141-153.

_____(1998), "Democracia y sociedad en la República de Corea", *Meridiano CERI*, Madrid, diciembre, pp. 23-26.

_____(2001), Laurentis, Hidalgo, Gonzalo Paz eds.,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Challenges of XXI Century*, Centro Español de Investigaciones Coreanas, Korea Foundation an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az, Gonzalo, "South Korea's Foreign Policy in an Transitional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Republic of Korea Today: Economy, Society, Internatinal Relations*, Jaime Silbert ed., Ed. Comunicarte, Córdoba, Argentina.

_____(1996), "Elecciones 1996 en Corea: un nuevo paso", Seoul, South Korea.

Romero Castilla, Alfredo(1995), "La transformación histórica de Corea", *Estudios de Asia y Africa* 98, Vol. 30, Septiembre-Diciembre, Número 3, Colegio de México.

1-1-4. 경제

Cornejo Bustamante, Romer(1997), "Confucianismo y desarrollo económico", *Estudios de Asia y Africa* 104, Vol. 32 septiembre-diciembre, Número 3, Colegio de México, México.

Uribe, Manuel, "Corea ante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de Norteamérica", *Revista iberoamericana*, Issue No. 5.

1-1-5. 국제관계

Di Massi, Jorge(1995), "Corea y la Coordinación de Políticas en la región Asia Pacífico", *Revista del Instituto Relaciones Internacionales*, N°5.

_____(2001), "The Constructin of a Cultural, Technological and Business Bridge between Argentina and the Far East", *La*

Construcción de un Puente Cultural y de Negocios entre Argentina y el Lejano Oriente, CYF Foundation(Evergreen Group), Buenos Aires, 2001.

Halliday, Jon(1980), “Autodependencia y dependencia: una comparacion entre Corea del Norte y Corea del Sur”, *Estudios de Asia y Africa* 44, Vol. XV Abril-Junio, num. 2.

Paz, Gonzalo(1999), “Argentina and the Integration Forum of Asia Pacific”, *Boletín Fundación Novum Milenium*, Buenos Aires, 1999.

_____, “The relations between Argentina and South Korea: Evolution and Perspectives”, *Estudios Internacional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hile, Santiago, Chile.

_____(2000), “The relations between the Argentine Republic and the Korean Peninsula”, published in internet by the Argentine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CARI), March 2000, <http://www.caril.org/ar/publicaciones/asiapacifico/Paz.htm>.

Rodao, Florentino, “Informe: Estudios sobre Asia y Corea en la Universidad Complutense”, *Revista Iberoamericana*, Issue No. 7.

Song, Byeong-sun(2002), “La manifestación en Corea y su perspectiva futura”, *Quimera*, Nos. 211-212, Febrero, pp. 75-79.

1-1-6. 역사

Torres de la Torre, Fernando, “Son Pyong Hui y el movimiento del Primero de Marzo”, *Revista Iberoamericana*, Issue No. 7, http://plaza.snu.ac.kr/~iberoam/english_publications/publications.htm.

1-1-7. 인류학

Paz, Gonzalo(1996), “A Pampa's Gaucho Research in Korea: Two worlds, One world”, *Korea Foundation Newsletter*, Vol. 5, No. 2, summer, Seoul, South Korea.

Taboada, Hernán G. H.(1998), “Un orientalismo periférico: viajeros latinoamericanos, 1786-1920”, *Estudios de Asia y Africa* 106, Vol. XXXIII Mayo-Agosto, Número 2, Colegio de México, México.

Zlotniik, Hania(1991), “La migración asiática a Latinoamérica”, *Estudios de*

Asia y Afruca 86, Vol. 36, Septiembre, Número 3, Colegio de México.

1-1-8. 종교

García-Darís, Liliana, “Budismo Won: ortodoxia y heterodoxia”, *Revista Iberoamericana*, Issue No. 7.

1-1-9. 예술

Barriga Tello, Martha Irene, “Arte tradicional: Corea y Perú, puntos de contacto”, *Revista Iberoamericana*, Issue No. 7.

_____, “La metalurgia: puntos de contacto entre las antiguas culturas de Corea y el Perú”, *Revista Iberoamericana*, Issue No. 7.

1-2. 학술대회 발표 논문

1-2-1. 정치

Castillo, Santiago(2000), “El futuro de la península coreana”,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_____(2002), “La encrucijada coreana”,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Conde de Saro, Rafael(2002), “El proceso intercoreano en la política exterior de la política exterior de la UE y España”,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De Laurentis Orello, Ernesto(2001), “Perspectivas de paz en la península coreana”, *Sociedad, Economía y Política en Corea*, Segundo Simpor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de 2001.

Paz, Gonzalo Sebastián(2000), “La transición democrática en la República de Corea”,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Pérez, José Ariosa(2002), “República Popular Democrática de Corea:

Posiciones aparentes”,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1-2-2. 경제

Bustelo, Pablo(2000), “Perspectivas económicas de Corea del Sur tras las crisis asiáticas”,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_____(2001), “Situación actual y perspectivas de la economía de la República de Corea”, *Sociedad, Economía y Política en Corea*, Segundo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García-Blanch, Francisco(2000), “El papel de la política científica y tecnológica en el desarrollo económico de Corea del Sur”,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González Biezdma, Eduardo(2002), “Relaciones laborales y nuevas tecnologías en Corea”,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Hidalgo, Alvaro(2000), “Marco social y desequilibrios de la economía coreana”,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_____(2001), “El nuevo marco-laboral en la República de Corea”, *Sociedad Economía y Política en Corea*, Ediciones Gondo, Madrid.

Manuel Brañas, Josep(2000), “Presente y perspectivas de futuro de los chaebol”,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ora, Carmen Díaz(2001), “Las relaciones comerciales de los países del este asiático: un análisis detallado para Corea del Sur”, *Sociedad, Economía y Política en Corea*, Segundo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de 2001.

Ojeda, Alfonso(2001), “Relaciones entre la Unión Europea y Corea”, Segundo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de 2001.

Paz, Gonzalo(1996), "Mercosur: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Congress *History and Culture of Latin America*, proceedings,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ociacion of Korea(LASAK), Seoul, South Korea, 1996.

_____(2001), "The Model of Development of South Korea, Elements for a Discussion", *In memorian Chung Ju-young*, 11/25/1915-03/21/2001, book collecting the presentations done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The Asiatic Model of Development. Lessons for Mexico", organized by the Academic Forum of Mexican Pacific and the Department of Pacific of the University of Guadalajara, México, México, May.

Plaza Cerezo, Sergio(2002), "La triangulación económica entre España, Corea del Sur, América Latina y Asia Oriental",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1-2-3. 국제관계

Bueno, Rafael(2001), "Corea del Norte en el proceso intercoreano", Segundo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de 2001.

Delage, Fernando(2001), "La cuestión coreana y el equilibrio estratégico en el noreste de Asia", Segundo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de 2001.

Jaime, Giné(2002), "Casa Asia y el fomento de las relaciones con Asia-Pacífico: Corea una nueva prioridad de la acción exterior del Estado",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Ojeda, Alfonso(2002), "Constituciones coreanas y española: una visión comparativa",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_____(2000), "Hacia un nuevo modelo de relaciones intercoreanas",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Paz, Gonzalo(1999), “Asia: A New Horizon for Latin América”, Latin America Studies Asscoation of Korea(LASAK), Proceedings, November.

Rafael Conde de Saro, Ilmo. Sr.(2001), “Discurso del Director General de Política Exterior para Asia Pacífico”, *Sociedad, Economía y Política en Corea*, Segundo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2001.

1-2-4. 역사

De Laurentis, Ernesto(2000), “Historia reciente de Corea. De la división del país a la transición democrática. Breve repaso histórico”,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 Brañas, Josep(2002), “Corea: una historia inacabada”,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1-2-5. 군사

De Laurentis, Ernesto(2002), “Percepción de amenazas y distribución de recursos en las fuerzas armadas coreanas”,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1-2-6. 한국전반

De Laurentis Orello(2001), “Perspectiva de paz en la península coreana”, Segundo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de 2001.

Donemeh del Río, Antonio J.(2001), “Una introducción al pensamiento coreano: tradición, religión y filosofía”, *Sociedad, Economía y Política en Corea*, Segundo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de 2001.

_____(2002), “Los coreanos y su cosmovisión”,

-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 Flores, Pilar(2000), “La evolución de la sociedad coreana”,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 García Márquez, Gabrial(1983), “De Corea a la realidad”, *Crónica y reportajes*, Bogotá.
- Hidalgo, Alvaro(2001), “El nuevo marco maboral en la República de Corea”, *Sociedad, Economía y Política en Corea*, Segundo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Madrid, 21 y 22 de noviembre de 2001.
- _____(2002), “El sistema sanitario coreano: implicaciones de la reforma de 2000”, *Señas de Identidad*, Tercer Simposio Internacinal sobre Corea, Madrid, 26 y 27 de noviembre de 2002.
- Ríos, Enrique(2000), “Aproximación a los medios de comunicación en Corea del Sur”,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 Rodao, Florentino(2000), “Japón y Estados Unidos dentro de las relaciones exteriores de Corea”, *Corea frente a los desafíos del siglo XXI*, I Simposio Internacional sobre Corea.

2. 단행본

2-1. 문학

- Bahk. Juan W.(2001), *Poesía Zen Antología Crítica de Poesía Zen de China, Corea y Japón*, Madrid: Editorial Verbum S. L
- Cardona, Francess LL., *Mitologías y Leyendas Asiáticas*, España: Edicomunicación.
- Han, Yong-un.So, Jong-ju.otros(2001), *Historia de la literatura coreana*, traducido por Yong-tae Min.Raúl Aceves, México: Editorial Aldus.
- Morillot, Juliette, *Las orquídeas rojas de Shanghai*, Grijalbo.
- Moreno-Durán.Humberto, Rafael(1996), *Mambrú*, Bogotá: Santillana.

2-2. 철학

Watts, Alan, *Las Filosofías de Asia*, EDAF.

2-3. 정치

Castillo, Santiago(1997), *Corea ante la Reunificación en el Siglo XXI*, Editorial Mornadi, Madrid.

2-4. 경제

Arteaga, López, *Corea, Milagro de Río Han*, grupo Editorial Iberoamérica.

Blanch Menarguez, Francisco García(2002), *Crecimiento Económico en Corea del Sur(1961-2000): Aspectos Internos y Factores Internacionales*, Editorial Síntesis.

Bustelo, Pablo, *Industrialización en América Latina y Asia Oriental*, Complutense.

Kang, T. W., *Será Corea el próximo Japón*, Norma, Colombia.

2-5. 국제관계

Agüero, Celma.Devalle, Susana.Tanaka, Michiko(comps.)(1982), *Campesino e Integración Nacional. Asia, Africa y América Latina*.

Alvarez de Antún, Mariela(1996), *Asia, Africa desde México. Treinta años del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 1996.

De la Lama, Garciela(ed.), *Japan and Korea, Vol. 1, 2*, Estudios de Asia y Africa, Colegio de México.

De la Torre, Ernesto (ed.)(1981), *Asia and Colonial Latin America*, Estudios de Asia y Africa, Colegio de México.

Novelo, Adriana(comp.)(1990), *Asia Oriental: opciones de desarrollo*,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 Colegio de México.

Powsaki, Ronald E., *La Guerra Fría*, Editorial Crítica.

2-6. 역사

Baik, Lee Ki , *Nueva Historia de Corea*, Editorial Eudeba, 1988.

Valenti Camp, Santiago, *Sociedades Secretas a través de la Historia*, Vol. V, Editorial Ediciones Alcántara.

2-7. 인류학

Colegio de México, *Oriente y Occidente*, Colegio de México, México.

Courtis, Corina(2000), *Construcciones de Alteridad*, Buenos Aires: eudeba.

Lorenzen, David(ed.)(1990), *Studies on Asia and Africa from Latin America*,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 Colegio de México.

Mera, Carolina(1988), *La inmigración coreana en Buenos Aires -
Multiculturalismo en el espacio urbano*, Buenos Aires: eudeba,
1998

Ota Mishima, María Elena(1990), *Un estudio de las migraciones asiáticas a
México siglo XIX y XX*,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
Colegio de México.

Roerich, Nicolás, *El Corazón de Asia*, Kier.

2-8. 종교

Gardini, Walter(1984), *El Cristianismo en Corea*, Buenos Aires: Universidad
del Salvador.

Kim, Hyun-chang(1988), *Junto al cristianismo*, Madrid: Editorial Universidad
Complutense, 1988.

2-9. 예술

Rhee, Ja Kyung, *Arte Contemporáneos de Corea*, Editorial Museo de Arte
Moderno.

2-10. 스포츠

Cho, Sihak Henry, Martínez Roca, *Taekwondo(Karate Coreano)*, Editorial
Martínez Roca(España)

Sung, Son Duk.Robert, Clark, *Carate Coreano*, Editorial Diana(México)
_____, *Taekwondo el arte marcial coreano*, Editorial Diana(México)

2-11. 관광

De Laurentis, Ernesto, *Corea del Sur, Guía de los guías*, Editorial
Miraguano.

2-12. 한국전반

García-Darís, Liliana(1988), *Corea, antigüedad y actualidad*, Editorial
Universitaria de Buenos Aires.

- Paz, Gonzalo, *Korea, an Asia Power of the XX Century*,
Valenti Camp, Santiago(1999), *Las Sectas en Oriente: China, Japón, Corea y Tibet(Las Sectas y las Sociedades Secretas a través de la Historia)*, Vol. V, Editorial Ediciones Alcántar, Madrid.
Wilson, Anne, *Cocina Japonesa y Coreana*, Editorial Koneman.

3. 번역본

- Baumgartner, Bárbara, *Cuentos Valiosos*, Blume.
Chong, Hyon-jong, Choi, Seung-ja.otros, *El tiempo transparente*, traducido por Won-hoon Choo.Francisco Carranza Romero, Lima: PUCP, 1996.
Chon, Sang-byoung, *Regresado al cielo*, traducido por Chang-min Kim. Otón moreno, Madrid: Editorial Verbum, 2000.
Chon, Sang-guk, *La Familia de Abe*, traducido por Hye_sun Ko.Francisco Carranza Romero, Lima: PUCP, 2001.
Han, Yong-un, So, Chung-ju.otros, *Flor y oro de la poesía coreana*, traducido por Yong-tae Min.Raúl Aceves, México: Editorial Aldus, 2001.
Hwang, Tong-gyu, *Posada de nubes y otros poemas*, traducido por Seung-jae Lee·Francisco Carranza Romero, Lima: PUCP, 1998.
Kim, Chunsu, *Poemas*, traducido por Changmin Kim, Madrid: Edit. Verbum, 1999.
Kim, Tong-ri, *Ulhwa, la exorcista*, traducido por Un-kyung Kim, Madrid: Editorial Complutense, 2000.
Kim, Joo-young, *El Pescador no tala*, traducido por Hyesun Ko de Carranza Francisco Carranza, Lima: PUCP, 1996.
Kim, Sowol, *Antología poética de Sowol Kim*, traducido por Chang-hwan Kim, Ulsan: Universidad Ulsan, 1997.
Kim, Won-il, *La Carcel del corazón y otros relatos*, traducido por Hye-sun Ko de Carranza.Francisco Carranza, Lima: PUCP, 1994.
_____, *La Casona de los Patios*, traducido por Hye-sun Ko de Carranza.Francisco Carranza, Lima: PUCP, 1995.

- Lee, Ho-chul, *El ciudadano pequeño*, traducido por Hae_myoungh Yu.Jorge Irendain,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 1999.
- Lee, Hyong-gi, *La Ciudad Inmortal*, traducido por Kwon-tae Jung.Raúl Aceves,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 1998.
- Lee, Mun-yol, *El Poeta*, Ediciones B.
- Lucío, Ana, *Cuentos y Leyendas Tradicionales de Corea*, Miraguano (España), 2001.
- Oh, Jong-hee, *El Espíritu del viento*, traducido por Hye-sun Ko.Francisco Carranza Romer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1997.
- Oh, Sae-young, *El cielo de Dios también tiene oscuridad*, traducido por Kwon-tae Jung.Raúl Aceves, México: Editorial Vuelta, 1997.
- Park, Doo-jin y otros, *Poesía Coreana Actual*, traducido por Yong-tae Min, Madrid: Ediciones Railp. S. A. Editorial, 1983.
- Sang, Yi, *Flores de fuego*, traducido por Byeong-sun song.Mario Alonso Arango, Ediciones Bassarai, Vitoria, 2001.
- So, Jong-ju, *Epítome de Sil-La*, traducido por Hyun-chang Kim, Madrid: Editorial Universidad Complutense, 1997.
- _____, *Poemas de un niño vabagundo de ochenta años y otros poemas*, traducido por Kwon-tae Jung, México: Editorial Vuelta, 1997.
- Un, Ko, *Fuentes en llamas*, traducido por Sung-chul Su.Paciencia Ontañón de Lope,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1999.
- Yi, Mun-yol, *Nuestro frustrado héroe*, traducido por Jin-su Kim.Ji-woong Mo, Madrid: Editorial Universidad Complutense, 1995.
- Yoon, Sun-me.Kim, Seung-kee, *Poseído por Dostoievski*, Ediciones Bassarai, Vitoria, 2001.
- Yun, Tong-ju, *Cielo, viento, estrellas y poesía*, traducido por Eun-hee Kwon Jun-sick Yun, Madrid: Editorial Verbum, 2000.

4. 신문기사

4-1. 정치

Paz, Gonzalo(1998), “Corea elige su Presidente: el País parece Argentine 1989”, *Ambito Financiero*, December 17, 1998, Buenos Aires, Argentina(newspaper)

4-2. 경제

_____ (1997), “Perspectivas del Comercio Exterior con el Asia Pacífico”, *Puntal*, May 15, Río Cuarto, Córdoba, Argentina (newspaper).

4-3. 역사

_____ (2000), “Histórica Cumbre entre las dos Corea”, *La Voz del Interior*, June 13, Córdoba, Argentina(newspaper).

5. 미제본 및 미출판 서적 및 논문

5-1. 정치

Paz, Gonzalo(2000), “Kim Dae-jung en Ojos Argentinos”, Buenos Aires, Argentina.

_____ (2000), “The relations between the Argentine Republic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uenos Aires, Argentina (unpublished).

5-2. 경제

Di Masi, Jorge Rafael(1994), “Korea & the Policy Coordin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제한연구.

Ojeda, Alfonso, “Social Movements, Old and New and the Korean Economic protest movement”, Korean Studies Colloquim,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érez, José Ariosa(1996), “South Korea: notes on its economic growth”, 제한연구.

Tempesta, Raúl Leopoldo(2000),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Argentinian & the Korean Experience in the MERCOSUR & APEC cases”, 제한연구.

5-3. 사회학

Romero-Castilla, Alfredo(1992), “멕시코 한인 이민사: 1905-1990”, 체한연구.
송, 정아(1993), “A study on the marital types and predicting psycho-social variables in the healthy marriage among the Korean urban couples”, 체한연구.

5-4. 언론학

Protzel de Amat, Javier(1994), “Mass Culture & Education in Contemporary Korea: An Essay on Mentalities & Attitudes from a Peruvian Outlook”, 체한연구.

5-5. 법학

Norberto Farinella, Favio(1997), “Legal System on patents: Brazil, Argentina & Korea”, 체한연구.

5-6. 인류학

Courtis, Corina(2000), “Linguistic ideology at Work: Languages as a problem for the social inser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Buenos Aires”, 체한연구.

5-7. 예술

González Vicari, María Teresa, “The Sculpture of the Kingdom of Shilla”, 체한연구.

Barriga Tello, Martha Irene(1993), 「한국의 대중예술과 종교: 페루와의 비교」, 체한연구.

Barriga, Pablo(1993), “남미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미술”, 체한연구.

5-8. 한국전반

Ojeda, Alfonso, “The present state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Colloquim,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94), “한국의 통일: 스페인인의 관점”, 체한연구.

Ernesto Bustios, Jorge(1993),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나타나는 역사, 문화 및 인적요소”, 체한연구.

Abstract

Este artículo tiene como objetivo de investigación de la recolección de los datos sobre Corea o los estudios coreanos hechos en el mundo hispánico. En este artículo uso el término 'los estudios coreanos' como el estudio de la lengua propia coreana y la cultura coreana en relación con los otros países. Los datos recoleccionados muestran que: 1) el número de los investigadores de estudios coreanos es muy limitado, 2) los objetivos de estudio son demasiado puntuales. Afortunadamente, el número de los artículos desordenados aumenta a partir de los 90 y aunque sea un porcentaje minúsculo, aumentan los investigadores que se dedican a los estudios coreanos. Por lo tanto, para la promoción de los estudios coreanos sería aconsejable; 1) que hubiera un fuerte esfuerzo mutuo de cooperación entre Corea y los países hispanohablantes, 2) recoger los datos esparcidos y ofrecer una base de datos y ofrecer una base de datos recopilados, 3) clasificar los datos recogidos, 4) propiciar la conexión entre los investigadores y con los institutos coreanos.

Key Words: Estudios coreanos, Mundo hispánico, Imagen de un país, Coreanólogos, Cultura coreana/ 한국학, 스페인어문화권, 국가이미지, 한국학자, 한국문화

논문투고일자: 2004. 1. 10

게재확정일자: 2004. 2. 13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BK21 한국학 교류.연구단(2000), □21세기 한국학의 국제화□, 서울: 고려대학교 BK21 한국학 교류.연구단,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 경기대학교(1996), 「외국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전망」, 서울: 경기대학교, 제3회 동아시아 국제학술심포지움.
- 국제비교한국학회 편(1995),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편(1999), □해외소재한국학관련사료수집 및 정보화 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성문출판사 편집부(1998),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한국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기중(ed.)(1993), □한국학 기본 용어집□, 한국국제교류재단.
- _____(1984), 「해외한국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재미한국학을 중심으로」, 서강 No. 14.
- 수원대 기전문화연구소 편(1990), □해외한국학연구현황□, 수원대학교 출판부.
- 안동대학교 국학부 편(1990), □국학의 세계화와 국제적 제휴□, 집문당.
-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 연구소(2002),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3□, 태학사.
- 한국국제교류재단 편(2002), □한국과 세계의 만남□, 지문당.
- 한국문화사 편집부(1998), □한국학 논총□, 한국문화사.
- 한국언론학회 편(2002), □국가이미지재고를 위한 해외홍보전략□, 한국언론학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회(2003), □지역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책갈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http://www.aks.ac.kr/-aks_services.asp?URL=/BBS2002/BBSList.asp 3302)
- 한국학술진흥재단(1982), □재구 한국학회 제6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영우 외, 교육인적자원부 편(2002), □한국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오만식·이길상(1999),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원 모형개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과제번호 99-9-7-1.
- 유리 바닌(1999), □러시아의 한국 연구□(기광서 역), 풀빛.
- 이문재(1986), 「해외한국학연구소의 실태조사」, 문화예술, No. 106.
- 이상섭, 권태환(1998), □한국의 지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은순(1996), □한국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 이현희(1980), 「해외의 한국학 연구와 그 방향」, □문예진흥□, No. 64.
- 이혜경(1994), □한국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임정은(2000), □국가이미지 재고를 위한 국제문화학술 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순우(2000),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Korean Journal of the Middle East Studies*, Vol. 21, No. 2.
- 조홍윤(2001), □한국문화론□, 동문선.
- 최윤국(2001), 「우리나라의 스페인·중남미 연구에 관한 자료분석」, □2001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서울대학교, 2001년 5월 26일.
- 최인(1978), □한국학 강의□, 백악문화사.
- Bates, Robert H.(1997),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 A Useful Controversy?”,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No. 30, June, pp.166-169.
- Morris, John T.(1997), “Introducing Master's Students to Area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Skills Approach”,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Vol. 31, No. 2, June, pp.175-179.

미주 경제통합의 역사와 전망

문남권(한국외대)*

- I. 서론
- II. 중남미 경제통합의 역사
- III. 미주지역 2차 지역주의의 발전
- IV. 결론

I. 서론

1960년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체결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경제통합체의 역사가 40여년이 지난 미주대륙은 지금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에 서있다. 초기에 중남미 7개 주요국들이 모여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제한적 시장통합체의 형태로 시작했던 중남미 경제통합체는 이제 2005년에 쿠바를 제외한 미주 대륙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광범위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 결성을 도모할 정도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미주대륙 경제통합체의 발전은 여러 측면에서 검증될 수 있다. 첫째는 경제통합체들의 제도적 발전이다. 초기의 제 1세대 경제 블록들이 제한된 형태의 특정산업 부문별 시장통합을 통한 수입 대체산업화 병행 전략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에 반해 1990년대 들

* Nam-Kwon Moon(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amkwon@hotmail.com), "History and Prospect of America's Economic Integration".

어 새로이 탄생한 경제통합체들은 무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실질적으로 경제교류의 모든 분야를 포괄할 정도로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제도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두 번째로는 개별 소지역 경제통합체의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 지역 내 몇 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지역特惠협정의 형태로 결성되었던 경제블럭들이 이제는 준회원국 및 신규회원국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며 역외국가와도 새로운 통합을 시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각국이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수가 현격히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한두개의 지역경제블럭에 참여하였던 국가들이 이제는 지역 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소지역 경제통합체 외에도 여타 국가들과 다수의 개별 쌍무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서 역내에 존재하는 전체 자유무역협정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1960년의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에서 1980년의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까지 6개 불과했던 경제통합체 수는 2003년 현재 미주 전 대륙에서 체결된 협정 수만 31개에 이르고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까지 합하면 곧 전체 경제 블럭 수가 40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내용과 형식 그리고 수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한 미주대륙의 경제통합체는 지금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에 놓여있다. 그것은 이전과 달리 국가들이 경제통합체를 단순한 개별산업 발전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국내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여 시장의 문호를 폐쇄하던 1960년대와 70년대의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경우와 달리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MERCOSUR(남미남부공동시장) 국가들이 지난 8.15 특별정상회담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MERCOSUR의 시장 통합을 더 가속화하며 역외국과의 경제통합을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했다는데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제 2005년이면 실질적으로 미주대륙 전 국가가 참여하게 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 자유무역협정은 단일 FTA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가장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그만큼 미주대륙 국가들의 경제활동과 경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주대륙 경제통합의 발전 상황에서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주 경제통합의 기존 연구 성과물들을 분석할 때 현재의 발전상을 정리할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기존의 연구물들은 개별 경제통합체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연구(김상겸, 1993; 김충실, 2001; Clement et al., 1999; Klein and Salvatore, 1995)와 미주대륙 경제통합체전반에 관한 일반 연구(CEPAL, 2001; Estevadeordal and Robert, 2001; Grien, 1994)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개별 통합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연구로서 가치가 뛰어나지만 미주대륙의 경제통합이 전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1960년부터 연대순으로 그간의 미주 경제통합 역사와 현재적 조망에 관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경제통합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국가간 경제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미주 경제통합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연구물이 이 분야 연구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미주대륙 경제통합의 역사와 제도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주지역의 전반적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진행방향에 대한 전망을 가능케 하리란 생각에서이다. 현재 운영중인 경제통합체가 기존의 경제블럭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할 때 FTAA와 같은 중요한 경제통합체의 출범 전망이 용이해 질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 두 가지 사안을 결정해야 했다. 하나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 역사와 현

재를 분석할 것인지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전미 대륙의 경제통합을 분석할 것인지 여부였다. 북미의 두 선진국이 지역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이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의 제 1차 지역주의에는 중남미 국가들만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여 발효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A 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관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미 국가들을 제외하고 중남미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연구의 의의가 반감한다는 판단하에 북미국가들을 포함한 미주지역 경제통합으로 연구의 범위가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중남미 다수의 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경제보완협정을 경제통합으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의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 조약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과 많은 수의 상호경제보완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들은 협정별로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자유화의 범위와 정도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GATT 24조가 지역주의로서 인정하는 기준인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자유화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별 자유화 협정이며 또한 WTO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제통합체는 현재 미주대륙에 존재하는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들이다.

북미를 포함한 전 미주대륙의 경제통합체가 제도와 규모 그리고 내용면에서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세계경제통합의 역사에 비춰본 미주 경제통합사를 제도적 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세계 경제통합 동향과 마찬가지로 미주지역 경제통합을 제1차 지역주의와 2차 지역주의로 구분하며 2장에서는 1차 지역주의를 분석한다.

제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2차 지역주의 경제통합체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4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미주지역 경제통합 역사의 특징을 종합하고 향후 미주 경제통합체 분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II. 중남미 경제통합의 역사

1. 세계경제통합의 발전과정

중남미 국가들과 북미국가들을 포괄하는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체 역사는 세계 경제통합체의 역사와 그 궤적을 함께 해왔다. 지역주의라 불리는 경제통합체가 공식인정된 것은 1947년 설립되어 세계 무역질서를 관장한 GATT가 규정 24조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신설하지 않는 소수국가들의 상호특혜협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역외 회원국에 대해 GATT의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면서부터이다.¹⁾

이렇듯 GATT가 설립협정에서 특혜협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일부 국가들이 상호 무역에 대해 특혜를 공여하는 제한적 의미의 경제통합 협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Machlup, 1977: 105-130; Yachir, 1995: 91-98). 세계 경제사에서 많은 국가들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일부 국가들과 선택적 무역자유화를 실시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들 협정들은 정치적 목적이 강했고 시장통합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최초 경제통합체로는 1833년 독일의 Zollverein(관세동맹)이 언급된다.²⁾ 이후 경제통합체는 1950년대까지 관세동맹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Zollverein의 등장 이후 유럽 내에서 관세동맹이 거의 유일한 경제 통합체로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김세원, 1996: 5).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GATT 체제하에서 세계무역이 활성화

1) 현재 지역경제통합을 다자주의에서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조항들은 1947년의 GATT 24조 외에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 그리고 WTO 서비스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 5조가 있다. WTO의 지역주의 조항에 관해서는 이경희(2001)와 노재봉(2002)를 참조하시오. 또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상관관계 및 쟁점에 대해서는 박성훈(1998) 참조하시오.

2) 프로이센이 앞장서서 만든 독일의 관세동맹으로서 독일에 자유무역을 가능케 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리스트와 같은 자유방임주의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결성된 것이다.

되어 감에 따라 각국은 다자주의와 병행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서 지역주의의 경제통합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 로마조약을 기점으로 유럽경제공동체가 결성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유럽 경제 통합이 시작되었고³⁾ 미주대륙을 비롯한 여타 대륙에서도 경제통합 체 결성이 뒤따랐다.

이때 Viner(1950)와 Lipsey(1957)를 필두로 한 지역주의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본격화되면서 경제통합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게 되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⁴⁾ 그렇지만 최근까지의 세계 각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순탄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03년 8월까지 GATT와 WTO에 설립이 통보된 지역 경제통합체는 결성된 것 255개, 발효 중 184개, 협상 진행 중인 것이 70여개에 달하며(WTO, www.wto.org) 2002년 통계로 경제통합체의 역내 무역이 세계 총무역중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하고 2005년에는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노재봉, 2002: 3-4). 이제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한개 이상의 지역경제통합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들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중심으로 다수의 FTA를 발효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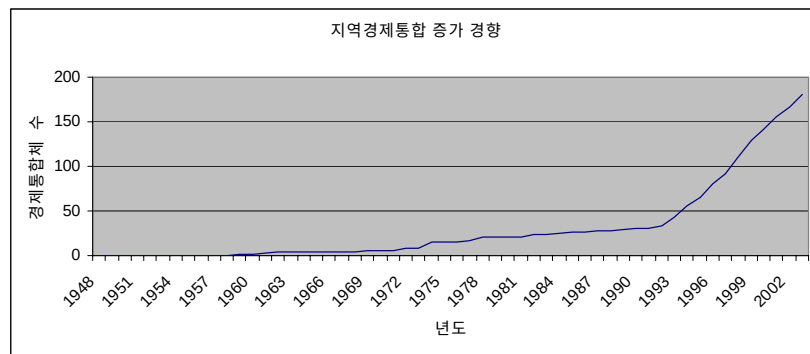
세계 경제에서 이러한 경제통합 동향을 De Melo and Panagariya (1993: 3-5) 및 Bhagwati(1999: 3-32)와 같은 여러 학자들은 두 차례의 지역주의 물결로 구분하고 있다. 1950년대 말 유럽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어 1960년대에 활성화된 제 1차 지역주의는 전반적으로 최근의 지역주의와 비교할 때 제도적으로 미숙한 형태의 경제

3)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이라 함은 GATT 24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거 무역의 실질적인 전 분야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함께 시장이 통합되는 통합을 의미한다. 로마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가 탄생하기 이전 1952년에 체결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있었지만 이는 개별 산업에 대한 부문 협정이기 때문에 로마조약을 완전한 형태의 유럽경제통합 기점으로 본다.

4)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195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이론적 논의는 대체로 경제통합체가 무역에서 갖는 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Viner, 1950; Lipsey, 1957; Johnson, 1962; Mundell, 1964)로 시작해서 장기간의 동적인 효과에 관한 논의(Krugman, 1993; Deardoff and Stern, 1994)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Lawrence(1996)과 World Bank(2000)등이 경제통합의 제도적 효과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통합체 결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유럽의 예를 본받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시장을 통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해 보고자 하였지만 아직 경제통합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회원국의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이들 경제 공동체는 1970년대 들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만다. 무엇보다 제삼세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되었던 이시기의 경제통합체는 정치적 이유가 경제 행위를 좌우하는 현실 때문에 실패하기도 했다.

[그림 1] 세계 경제통합체 결성 동향



자료: 세계무역기구, 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제2차 지역주의는 1차 때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⁵⁾ 무엇보다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회원국이 다양해지고 협정의 제도화가 발달하였다. 첫째로 1차 지역주의에서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제삼세계 국가들이 주된 경제통합체 구성원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주대륙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 지역이 소지역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5) 1차와 2차 지역주의의 특징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했다. 관련 논의로서 김중렬/권원순(1998: 22-46), Bhagwati(1999: 3-32) 그리고 Cable and Henderson(1994)을 참조하시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경제통합체의 자유화가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경제통합체의 안정적 운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차 지역주의에서는 무역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에만 치중한 반면 1990년대 이후의 자유무역협정들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 정부조달 협정, 투자, 기술표준화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 및 표준화를 통해 시장통합을 완성하고 교역의 증진과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1차 때와 달리 지역주의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통합의 모델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네 번째로는 이전에 폐쇄적인 면이 있었던 지역경제통합체들이 전반적으로 개방적으로 전환되면서 EU의 경우와 같이 회원국 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역외 국가들과의 대륙간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중요한 것은 최근 지역경제통합체들은 회원수 확대에 따른 규모의 증가와 동시에 통합의 정도도 심화시키고 있다. EU는 유럽경제공동체로 출발하여 현재의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공동체의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통합의 강도를 강화하여 왔다. 단순한 무역자유화를 뛰어넘어 이제는 단일화폐를 사용하며 공동재정정책까지 펼치는 등 경제주권의 일부까지 초국가 기구에 이양할 정도의 경제통합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통합의 심화 추세는 미주대륙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다른 소지역 경제통합체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현상이다.

세계 경제통합 동향과 관련하여 여섯 번째로 분석되는 것은 지역 경제통합 모델이 개방 지향적으로 전환되면서 WTO의 다자체제와 조화되는 경제통합체를 결성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념의 정리에서부터 실제 시행 전략까지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지만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APEC의 경우가⁶⁾ 그

6)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라는 개념은 APEC과 중남미의 경제통합에서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APEC에서는 다자주의와 조화되는 경제통합체

러하고 다른 경제통합체들도 WTO 주도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통합체의 비중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활동은 WTO의 다자주의 외에도 각국에 속한 소지역 통합체의 범주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주 지역의 경제통합체도 세계 경제의 지역경제통합체들과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지역주의의 특성들이 상당부분 적용되었다. 따라서 다음절에서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기 틀을 적용한다.

2. 중남미의 1차 지역주의 배경과 통합체들

1960년에 몬테비데오 조약의 체결로 시작된 미주대륙 경제통합의 특징은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참여하지 않은 멕시코이하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세계 경제의 전후 복구에 앞장서고 있던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다자무대를 통한 세계 무역의 자유화에 힘쓰고 있었다. 반면에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 대전 기간 중 세계시장에서의 공산품과 자본재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관련 산업의 역내 생산을 추진하던 단계였다(Furtado, 1991: 68-75; Cardoso and Helwege, 1997: 40-52).

몬테비데오 조약의 체결로 1961년에 출범한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으로 시작된 중남미의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에는 유엔의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EPAL)가 큰 기여를 했지만 1950년대에는 유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1958년에 이르러 서야 로마조약이 체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남미의 경제통합도 산

의 의미로서 open membership과 자유화의 무조건적 확대를 개방적 지역주의의 원 의미로서 이해하고 있지만 중남미에서는 1차 지역주의의 폐쇄적 성격에 대비되는 개방적 성격의 지역주의라는 의미에서 개방적 지역주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박성훈(1998: 32-59), CEPAL(1994: 9-20), Kuwayama(1999: 7-14)를 참조하시오.

업발전 전략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쳐지지 않는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 통합 노력이 본격화 될 당시에 중남미 역내 교역은 아직 미약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사이의 교역 및 베네수엘라와 카리브해 국가들간 교역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 결성된 중남미경제위원회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역내 경제통합과 교역증가를 추진하게 된다(Wionczek, 59-62; Vanden and Prevost, 154-161).

1956년과 1957년에 CEPAL은 무역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특혜무역제도의 개념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1957년 10월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미주경제회의에서 최초로 중남미 경제통합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아직 경제통합에 관한 명확한 아이디어와 방안이 결핍된 상태였다. 계속된 논의 끝에 1959년 2월 실무 작업반 모임 이후 1959년 5월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CEPAL 격년회의에서 통합의 원칙과 방안에 관해 논의 후 합의하고 9개월 후인 1960년 2월 18일 몬테비데오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CEPAL이 제안한 중남미 경제통합기구들의 설립과 운영원칙은 당시에 CEPAL과 이 지역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경제통합의 개념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1959년에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CEPAL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서의 기초가 된 이 원칙들은 1) 모든 상품의 무역자유화가 최종목표 2) 관세동맹이 이 지역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형태 3) 역내의 상대적 저발전국에 특혜 인정 4) 다자결제기구의 창설⁷⁾ 5) 임시 수입제한 권한(Safe Guard) 인정 6) 농

7) CEPAL과 지역 국가들은 경화부족이 지역 무역증대의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의 유럽지급동맹(European Payment Union)과 같은 형태의 중남미 지역 국가간 다자간 결제기구를 지역경제통합체와 함께 창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IMF는 1)지역내 교역규모가 작고 2)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의 통화가 태환성을 보유함에 따라 다자결제가 불필요하며 3)양자결제기구는 중앙은행간 협상으로 가능하며 4)상기 기구는 다자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양자주의의 지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중남미 다자결제기구 창설에 반대한다. 역내 국가 다수가 당시에 IMF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중이라 IMF에 대항해 창설을 감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련논의로서 Bancomext(1964: 41-76), IDB(1969: 31-40), Wionczek(1979: 71-79)를 참조하시오.

산품 수입제한 권리 인정 7) 경쟁법 제정 8) 국가별 산업특화는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의 결과 9) 금융 및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10) 자문기구와 중재기구 설치 11) 민간주도 협력이 바람직 등이다 (Wizonczek, 1978: 63).

CEPAL이 제시한 이러한 원칙과 제안이 실제 당시 중남미 지역에 설립된 경제통합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2차 지역주의와 1차 지역주의의 차이점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표 1>은 제1차 중남미 지역주의 경제통합체를 연대기 순으로 보여준다.

<표 1> 제1차 중남미 경제통합체

제1차 중남미 경제통합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LAFTA)	서명일: 1960년 2월 18일, 발효일: 1961년 6월 2일 1차 가입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멕시코 2차 가입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총 11개국
중미공동시장 (CACM)	서명일: 1960년 12월 13일 발효일: 1961년 6월 4일(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1962년 4월 27일 (온두라스), 1963년 9월 23일(코스타리카) 회원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총 5개국
카리브 자유무역연합 (CARIFTA)	서명일: 1965년 12월(Dickens Bay 협정) 회원국: 안티과 바부다, 바베이도스, 브리티시 기아나 1968년 5월 1일 새 협정 공식 출범, 회원국: 안티과 바부다,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⁸⁾ , 트리니다드토바고, 7월에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 키츠-네비스-앵겔라 ⁹⁾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가입. 8월 1일에 자메이카와 몬세라트 가입
안데스 공동체 (ANCOM)	서명일: 1969년 5월 26일 회원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총 5개국
카리브 공동시장 (CARICOM)	서명일: 1973년 7월 4일, 발효일: 1973년 8월 1일 회원국: 안티과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몬세라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 수리남, 아이티, 총 15개국 옵저버 3개국(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 터그스, 카이코스)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IA)	서명일: 1980, 8월 12일, 발효일: 1981, 3월 18일 회원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총 12개국

자료: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www.sice.org

1980년에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새로 출범한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까지 총 6개의 경제통합체가 이 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그 중 지금까지 발효 중인 것은 중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 그리고 카리브공동시장 3개이다.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의 경우와 같이 카리브 공동시장도 카리브자유무역연합이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결성된 것이므로 카리브자유무역연합도 중남미 제1차 지역주의 역사에 포함되었다.

3. 1차 지역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이들 경제공동체들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당시에는 2개국간 체결되는 쌍무협정이 없었고 소지역 통합체 결성이 전부였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남미 지역에 결성된 많은 2개국간의 FTA가 구상되지 않았고 중남미 지역 전체 또는 소지역 경제통합체가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형태를 목표로 결성되었다는 점이 제2차 지역주의와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드러난다.

중남미 지역 제 1차 지역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각 통합체별로 많은 부속기구가 설치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각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의 설립이 중요하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중미공동시장의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8) 1966년 5월에 브리티시 기아나는 '가이아나'로 독립하여 1965년 협정 체결때와 달리 1968년 협정 발효 시 국명이 바뀌었다. 카리브 자유무역연합이 출범할 당시 이 지역 국가 중 상당수가 영국 식민지 상태였지만 새로이 출범한 지역경제통합은 독립국과 식민지 상태의 비독립국 모두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웹문서, "The History of CARICOM", www.caricom.org

9) 세인트 키츠·네비스·앵귈라는 세 개의 섬이 모여 형성된 자치령으로서 1967년 결합되어 서인도 연합주의 일원으로서 카리브 자유무역연합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71년 세인트 키츠 네비스와 앵귈라가 분리되어 카리브 공동시장에 가입할 때는 앵귈라 섬이 빠졌다. 앵귈라는 현재 영국령으로 남아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www.encyber.com

Integration)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도 전인 1960년에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에 중미 5개국의 통합을 위한 기구로서 설치되었다.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낮은 금리로 동 지역의 인프라 건설, 산업개발자금 지원,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기술지원 등에 자금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박영호, 1995: 22-23). 카리브공동시장의 경우에는 전신인 카리브자유무역연합이 1968년 5월 1일에 가이아나 조지타운에 영연방 카리브 지역사무국(The Commonwealth Caribbean Regional Secretariat) 설립한 후 1969년 10월 바베이도스 브리짓타운에 카리브개발은행(The Caribbean Development Bank)을 설치했다. 그 역할은 역내 다른 경제공동체들의 개발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러 산업부문과 농업, 광업, 관광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및 지역 경제통합을 가속화 시키는데 있었다(김원호 외, 1997: 48-49).

그 외의 2차 지역주의와 다른 1차 지역주의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제도적 특징은 무역자유화 틀의 불완전이다.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이나 중미공동시장 그리고 안데스 공동체처럼 1960년대에 출범한 주요 소지역 경제통합체들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공동시장을 창설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하고 출범당시 명확한 관세인하 스케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략적인 협상일정과 자유화 목표만 제시한 채 개별 품목별 협상을 후일로 미뤄 변동하는 지역 내 정치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경제통합체 건설이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의 경우를 보면 협정의 목표를 라틴아메리카 역내 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로 삼고 구체적 무역 자유화는 1) 매년 양허안이 작성되는 국가별 특정 리스트와 2) 일반 자유화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협상 과정을 통해 추진하였다. 매년 회원국은 제 3국에 적용하는 무역장벽의 8%를 철폐하고자 하였으며 일반 자유화 품목 리스트는 최초 3년간 금액 기준으로 25%, 6년 후 50%, 9년 후 75%, 12년 후 대부분을 포함하여 협정 발효 후 12년의 기간 내에 자

유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Grien, 1994: 252-259, Wionczek, 1979: 53-59).¹⁰⁾

중미공동시장은 마나구아 협정에 의거 출범 시 관세대상 품목의 약 95%에 대해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1966년 7월까지 완전 철폐를 명시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¹¹⁾. 대외공통관세(CET)를 설정해 관세동맹 수준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관세철폐는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970년에 이르러 역내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가 관세장벽과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반적인 자유화가 중단되었다(박영호, 1996: 24-25).

안데스 공동체의 경우에는 무역자유화 시행방안을 4단계로 구분했다. 첫 단계로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의 공동리스트 품목에 대해서는 1970년까지 자유화하며 둘째로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 부문별 산업화 계획에 있는 품목은 1978년까지 수입 자유화를 단행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로서 부문별 산업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면제계획을 사례별로 정하며 넷째로 수입자유화 대상 품목에 대해서 1983년까지 자유화 할 계획이었다(김원호 외, 1997: 37-38). 이와 같은 자유화 스케줄 역시 회원국들에 의한 자의적 자유화 중단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자유화는 협정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카리브 공동체의 경우는 1973년 차과라마스 조약이 조인될 당시에 85%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등의 조치가 실행중인 상태에서 차후 무역자유화 조치를 협상을 통해 확대기로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은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이 관세인하

10) 국가별 특정 리스트는 회원국간 협상을 통해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중국에는 일반 자유화 품목리스트로 통합하여 모든 상품을 자유화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회원국이 특정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 대신 다른 산업에서 자유화 정도를 확대함으로써 매년 자유화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11) 1960년 12월에 서명되고 1963년 발효된 마나구아 협정을 토대로 한 중미공동시장은 소속 회원국들이 과거 한 국가였던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통합의 속도가 지역 내 타 기구들 보다 빠른 특징을 보였다.

와 무역자유화에서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되자 LAFTA를 현실에 맞게 발전적으로 해체한 후 재결성하자는 가맹국들의 의견이 모아져 1980년에 새로이 출범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이다. LAFTA의 정체 원인이 다자간 협의에 의한 관세인하와 철폐 규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2개국간의 협정과 부분 협정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유화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¹²⁾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 1차 지역주의 통합체들은 협정 출범 시 완전한 자유화 일정 제시 미비로 무역의 자유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에 병행하여 무역 자유화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즉, 자유화가 경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지 않고 예외가 되는 산업이 존재함으로써 경제통합의 예상 효과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한계를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였다¹³⁾. 대표적인 자유화 예외 산업은 이 지역 국가 대부분의 당시 주역산업이었던 농업 분야였으며 또한 각 통합체 별로 민감 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폭넓게 존재하였다.

1차 지역주의의 세 번째 제도적 특징은 역내 상대적 저개발국에 대한 배려조치가 모든 소지역 경제통합체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통합의 목적이 역내의 산업화 진전과 역내 국가들의 조화로운 발전이었음에 기인한다.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의 경우는 에콰도르와 파라과이를 위한 조치로서 1) 역내 다른 회원국들의 일방적 양허 2)特惠적 자유화 프로그램의 실시 3)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특별조치 허용 4) 다른 회원국들의 원조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Wionczek, 1979: 56). 안데스 공동체의 경우에도 역내 저개발국인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를 위한 특별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균형발전의 달성과 회원국간의 조화를 명기하고 있으며 카리브 공동체도 설립 조약에서 역내 후진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의 부여를 정의하고 있

12) Witker V.(1981: 73-112)가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과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13) Lawrence(1996)는 경제통합이 인위적 무역장벽에 의한 기존의 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분야가 자유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ATT도 24조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 분야의 무역 자유화가 GATT가 인정하는 지역경제통합의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¹⁴⁾

제 1차 지역주의의 네 번째 제도적 특징은 당시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 모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경제통합체가 역내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CEPAL의 중남미 경제통합 원칙은 국가별 산업특화는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의 결과로서 이해하고 민간이 시장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경제통합체 구상에 있어서는 각국별 산업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당시에 역내국들이 자유무역에 의한 지역경제통합을 수입대체산업화에 기반한 내부지향적 경제발전 모델의 추진전략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안데스 공동체이다. 안데스 공동체 설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당시까지 국별 단위로 추진되어 오던 정부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를 역내차원으로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산업발전 정책(Programas Sectoriales de Desarrollo)을 제정하고 역내 중복 산업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별로 10개 분야에서 중점산업을 지정하여 산업발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석유화학, 금속기계, 자동차 등 3개 분야를 지정했다. 그러나 산업발전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각국이 협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펼쳤고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정부간 협조 개입에 의한 역내 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통합정책은 실패했다(Lucía Lozano, 2001: 143-158).

또한 카리브 공동체를 탄생시킨 차과라마스 조약은 산업투자 장려 계획의 각국간 조정 및 특정부문에 대한 공동개발 계획 추진을 정의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정부의 산업화를 위한 개입은 당시의 이 지

14) 특히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은 1980년의 몬테비데오 협정에서 역내 공동시장 형성과 더불어 역내 국가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역내특혜관세, 지역협정, 부분협정을 제시하고 있다. LAIA의 몬테비데오 협정 내용 및 각종 현안 그리고 각국의 관세양허 수준을 www.aladi.org에서 참조할 수 있다.

15) 카리브 공동체 홈페이지에서 차과라마스 조약과 조지타운 협정문을 참조하시오. www.caricom.org

역 경제발전 모델과 합치되는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경제통합의 본래 취지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로 1차 지역주의의 제도적 특징은 민족주의 감정에 기초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엄격한 제한과 규제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선진국을 비롯하여 중남미를 제외한 제삼세계 국가들도 자유주의 기조에 편승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유독 중남미 국가들만은 칼보 독트린(Calvo Doctrine)에 기반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해 규제일변도였다(Spero, 1997: 260-265). 이러한 정책 기조는 역내 각국의 법률과 경제통합체의 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 규제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73년에 제정된 멕시코 외국인투자법상의 멕시코화(Mexicanization) 규정, 안데스 공동체의 ‘대외국인투자 단일규정(Uniform Code on Foreign Investment)’ 그리고 카리브 공동체의 ‘산업육성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조정협정(CARICOM Agreement on the Harmonization of Fiscal Incentives to Industry)’ 등이 있다.

Mexicanization 규정은 자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소유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49/51 지분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기업의 멕시코 인 소유를 명시한 규정이다(문남권, 2002: 7-9; Twomey, 1993: 53; Claus Von Wobeser, 2000: 232).¹⁶⁾ 안데스 공동체의 ‘대외국인투자 단일규정’은 1971년 7월에 발효된 안데스협정 제 24조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내용을 보면 투자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과실송금의 한도를 20%까지만 허용했었다. 또한 기존 투자에 대해서도 정해진 분야에서는 최저 80%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매도하도록 되어있었다.¹⁷⁾

16) Mexicanization 규정은 1989년에 1973년 법 시행령으로 대체되며 혁신적으로 자유화되었다. 1989년 시행령은 외채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산업 발전을 꾀하려 했던 당시 살리나스 행정부의 신 경제정책 기조에 의해 제정되었다. 시행령의 본 법인 1973년 법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리적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수세에 몰린 여당의 입장에서 새 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17) 1970년대는 중남미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비롯한 기관 산업에 대해서 여러 국가에서 기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영화가 단행된 시기였다. 페루의 국영석유회사를 비롯해 칠레의 구리 등이 그러했다. 이런 분위기에 일관되게 안데스 공동체는 강력한 외국

1973년에 발효된 카리브 공동체의 ‘산업육성위한 재정인센티브 조정협정’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수입대체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는 분야 및 국가 지정 육성산업에 대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들과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이 조합되어 있다. 투자 유인책으로는 투자 기업의 수입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프로그램의 실시와 소득세 면제 방안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역내 경제통합체와 마찬가지로 외환통제, 송금제한, 지분제한 및 투자분야 제한 등의 각종 이행요건 부과 및 투자대상 산업 제한 조치를 실행했다.

중남미 국가들에 한정된 미주대륙의 제1차 지역주의는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적 특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바로 제도적 틀이 갖는 한계점 및 대외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 들어서 모든 통합체들이 사실상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내적 요인으로는 역내 자유무역 결실의 불균등 분배 및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통합 노력을 중단시켰다. 중미공동시장의 경우 1963년 협정발효 당시 3년이라는 초단기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단일시장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하였다. 소국들의 통합이라는 점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통합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와 함께 역내 선진국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가 역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기타 소국들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만한 정치적 협력체제 및 통합체내의 제도적 조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가 1970년에 역내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을 신설함에 따라 출범 9년만에 통합체는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인 투자 규제를 실시한다. ‘대외국인투자 단일규정’은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 하에서 발효된 협정이지만 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투자 규정에 관한 마찰을 빌미로 안데스 공동체를 1976년에 탈퇴한다. 이후 1980년대의 외채위기를 겪은 후 중남미 지역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안데스 공동체도 실용주의 노선을 회복하여 1987년에는 기존의 결의안 제 24조를 대체하여 외국인 투자 규정을 대폭 자유화한 결의안 제 220호를 발효시킨다. 관련논의로서 Andean Community(1999), Shatz(2001)을 참조하시오.

또 다른 역내 주요 통합체인 안데스 공동체는 결성 자체가 안데스 소지역 국가들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의 틀 내에서 자유무역 및 산업협력의 이익이 상대적 역내 대국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집중되고 통합의 내용과 속도에 관하여 회원국간 마찰이 발생하자 안데스 소지역 국가들이 중소국가들의 입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규모 단일시장 형성을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데스 공동체 및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모두 1970년대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혼란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합이 진전되지 못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회원국들은 1980년에 기존의 틀 하에서는 역내국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통합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달라진 경제여건에 맞춰 1980년에 다시 몬테비데오 협정을 체결하고 기구를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으로 재편한다. 그러나 1980년대의 대내외 경제 환경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 가속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중남미 전역에 큰 타격을 입힌 외채위기, 국제금리 상승, 국제자본유입 중단, 세계 경제 침체 및 중남미 수출상품 가격 하락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경제 자유화와 경제통합을 중단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선택을 하게 했다. 당시 1차 지역주의 때의 경제통합체들은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했으며 역내 국가들은 대내외 여건의 악화상황에서 경제통합 중단을 선택하였다.

III. 미주지역 2차 지역주의의 발전

1. 2차 지역주의의 출현

외채위기와 함께 1980년대 초반 중단되어 버린 미주지역의 경제통합노력은 역내 경제가 발전모델을 바꾼 1980년대 중반이후 전 세계

적인 지역주의의 활성화에 편승하여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 당시에 중남미 전 지역을 강타했던 경제위기는 이전의 발전모델이 고갈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이 지역의 1차 지역주의 모델이 갖고 있던 한계점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통합체란 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장왜곡을 없애고 무역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의 경쟁력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Balassa(1971)는 무역정책과 산업화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1차 지역주의 시절, 즉 경제의 본격적 개방이전 내부지향적 성장 모델하에서 가장 왜곡된 무역과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분석한바 있다. 결국 보호된 시장의 확대라는 개념 하에서 추진된 1차 지역주의의 실패와 80년대 경제위기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은 중남미 국가들은 이전의 내부지향적 성장모델에서 수출에 기반한 대외지향적 성장모델로 발전 모델을 변경하고 구체적으로 규제완화와 민영화 및 전반적인 경제의 자유화를 단행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분야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과 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증가가 필요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서 경제통합체의 재 활성화와 신설이 모색된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의 유입과 이에 기반한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Edwards(1995)와 Borja(2001)가 분석한 대로 중남미 경제에 대한 국제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뿐만 아니라 자유화가 국내 기업들의 기업구조 개편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제도화가 필요했고¹⁸⁾ 중남미 국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경제통합을 재추진하였다.

18) 경제통합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중에서 중남미 국가들과 같은 개도국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개혁의 제도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은 Rubio(1992: 13-25), Lawrence(1996: 1-33), World Bank(2000: 11-62) 등 여러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다. World Bank(2000)는 개도국들이 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NAFTA 하에서 멕시코의 경우처럼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경제통합체를 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역내 경제 환경하에서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재추진 되는 시기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세계적으로도 지역주의가 다시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변되던 다자주의의 침체, 유럽에서의 경제통합 심화,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의 무역정책 전환,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 개방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경제의 자유화 및 경제통합 그리고 자본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던 시기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1차 지역주의와는 달리 각종 쌍무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소지역 경제통합체 심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제의 개방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중남미 경제의 경제통합은 그 형식과 내용 그리고 범위가 계속 발전 및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미주지역 제2차 지역주의

서명일	경제통합체(유형)	발효일	회원국
1985년 4월	미국-이스라엘 FTA	1985년 8월 19일	미국, 이스라엘
1988년 1월	미국-캐나다 FTA	1989년 1월 1일	미국, 캐나다
1990년 9월	G-3 (FTA)	1995년 1월 1일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1991년 3월 26일	MERCOSUR(CU)	1995년 1월 1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1992년 8월	멕시코-니카라과 FTA	1998년 7월 1일	멕시코, 니카라과
1992년 12월	북미자유무역협정(FTA)	1994년 1월 1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1994년 4월 5일	코스타리카-멕시코 FTA	1995년 1월 1일	멕시코, 코스타리카
1994년 9월 10일	볼리비아-멕시코 FTA	1995년 1월 1일	볼리비아, 멕시코
1995년 2월	멕시코-EU FTA	2000년 7월 1일	멕시코, EU 회원국
1996년 7월 31일	캐나다-이스라엘 FTA	1997년 9월 1일	캐나다, 이스라엘
1996년 12월 5일	캐나다-칠레 FTA	1997년 7월 5일	캐나다, 칠레
1998년 4월 16일	CACM-도미니카 공화국 FTA	2001년 10월 3일 2001년 10월 4일 2001년 12월 19일 2002년 3월 7일1)	중미공동시장 회원국, 도미니카 공화국
1998년 8월 22일	도미니카 공화국-카리브공동시장 FTA	미발효	도미니카 공화국, 카리브공동시장 회원국
1998년 10월 1일	칠레-멕시코 FTA	1999년 8월 1일	칠레, 멕시코
1999년 10월 18일	CACM-칠레 FTA	2002년 2월 15일 2002년 6월 3일	중미공동시장 회원국, 칠레
2000년 4월 10일	멕시코-이스라엘 FTA	2000년 7월 1일	멕시코, 이스라엘
2000년 6월 29일	멕시코-북중미 3국 FTA	2001년 3월 14일 2001년 3월 15일 2001년 3월 15일 2001년 6월 1일2)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2000년 10월 24일	미국-요르단 FTA	2001년 12월 17일	미국, 요르단

2000년 10월 24일	멕시코-EFTA FTA	2001년 7월 1일	멕시코, 유럽자유 무역연합 회원국
2001년 4월 23일	캐나다-코스타리카 FTA	2002년 11월 1일	캐나다, 코스타리카
2002년 2월 6일	CACM-파나마 FTA	미발효	중미공동시장 회원국, 파나마
2002년 11월 18일	칠레-EU FTA	미발효	칠레, EU 회원국
2003년 2월 15일	칠레-한국 FTA	미발효	칠레, 한국
2003년 5월 6일	미국-싱가포르 FTA	미발효	미국, 싱가포르
2003년 6월 6일	미국-칠레 FTA	미발효	미국, 칠레
2003년 6월 26일	칠레-EFTA FTA	미발효	칠레, EFTA 회원국
2003년 8월 21일	대만-파나마 FTA	2004년 1월 1일 예정	대만, 파나마

자료: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www.sice.or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www.usitc.gov,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주: 1) 발효일 순서대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가 도미니카 공화국과 맺은 FTA가 발효되었다.

2) 발효일 순서대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발효되었다.

<표 2>에서 살펴본 미주지역 제 2차 지역주의는 1차 때와는 많은 다른 점들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2차 지역주의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기반 하여 앞으로의 미주지역 경제통합체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본다.

2. 2차 지역주의의 제도적 특징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미주지역의 2차 지역주의는 미국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경제통합의 노력이 중남미 지역에 한정되고 북미의 두 나라는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무역정책을 펼쳐왔던데 반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역주의에 동참으로 선회하였다. 이로써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이 북미와 중남미가 결합되는 미주 경제통합으로 확대되었으며 전반적 경제통합의 성격과 목표가 바뀌었다.

1차 지역주의에서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이론의 전통적인 무역창출

효과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국내시장의 협소함과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대체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도된 것이었다(박희중, 1996: 2). 그러나 2차 지역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발전모델의 변화에 따른 자유화와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1차 때와는 다른 방향과 성격의 경제통합이다.

2차 지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주도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이전에 의도적 무관심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마샬플랜 이후 유럽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던 것과 달리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 노력에는 분명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¹⁹⁾ 1959년 2월 미주기구 21위원회에서 제시한 미국의 공식입장은 1) GATT 24조와 부합할 것 2) 상품교역뿐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할 것 3) 태환가능한 화폐를 통한 무역금융 4) 역내경쟁 강화 5) 지역간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 등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중남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진국의 일반원칙만 제시한 것으로서 중남미 지역 통합을 달가워하지 않는 의도적 태도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쿠바혁명과 반미감정 고조로 인해 케네디 행정부이래 조금씩 변화였다(Wionczek, 1979:79-93).

다자주의와 대별되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계속 다자주의 우선주의였으나 자국 경제가 심각한 경쟁력 저하와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다자주의 진전이 더디던 1980년대 들어 변하기 시작하였다²⁰⁾. 유럽과 일본의 경제블럭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남미 지역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지역주의로 무역정책이 선회된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미국의 지역주의 첫 상대는 미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로 시작하였다.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의 규모가

19) 미국의 의도적 무관심은 유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EPAL)에 대한 미국의 초기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EPAL 이 주도하여 진행되던 중남미 경제통합 등의 계획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았고 CEPAL은 미국이 주도하던 미주기구(OAS) 잠재적 도전자이며 CEPAL의 활동이 중남미 민족주의 확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20)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김기수(1996)과 정인교(1998)를 참조하시오.

실질적으로 이미 시장 통합 상태에 있었으며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 후 1992년에는 남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NAFTA를 통해 수직적 경제통합모형을 이룩한다. 북미와 중남미의 본격적 통합의 계기가 된 NAFTA 이후 현재 미주대륙의 경제통합에서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미주지역 경제통합체들은 1차대와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제도적 특징은 경제통합체들의 자유화의 범위가 확대되고 운영 메커니즘과 관련한 제도적 발달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통합체들은 이론적으로도 관세동맹에 의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이 경제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 인식되었지만 이후 이론적 발달과 함께 경제통합체가 포괄하는 자유화의 범위가 무역에서 투자를 포함한 제반 경제관계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산업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국가들에서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투자 자유화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범위 확대와 제도적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경제블록은 NAFTA로 평가된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에 다자무대에서도 국제적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던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구매 등에서 자유화를 이룩하였으며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도 부속협정을 채택하였다. 경제 통합체 운영상의 메커니즘으로서 전문 패널제로 운영되며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제도상의 발달을 이룩하였다.²¹⁾ 표 2에 있는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모든 미주지역 경제통합체 들이 1차 지역주의와 달리 자유화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지역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제 1차 지역주의 이후 1980년대

21) NAFTA는 협정문 11장과 20장에서 투자와 일반 무역부문의 분쟁해결 절차와 담당 기구를 별개로 설치하여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제통합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통합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MERCOSUR는 최근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재판소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에 사실상 기능이 중지되었던 중남미 소지역 경제통합체들이 1990년대 들어 새롭게 재편되며 통합이 강화되고 역내무역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재편된 소지역 통합체들은 기존의 통합이 보호장벽 안에서 시행된 비효율적이며 인위적인 수입대체적 산업화 정책의 성격을 버리고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를 위한 개방적 성격의 경제통합체로 탈바꿈했다.

중미공동시장은 운영 7년만인 1970년 코스타리카의 일방적 관세인상을 시발로 통합노력이 중단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외채위기의 점진적 극복과 역내 정치안정을 기반으로 중미공동시장 재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 6월 역내국들 정상회담에서 ‘안티구아 선언’을 발표하며 중미공동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중미경제행동계획을 내놓은 이래 1993년 중미통합기구 신설과 중미관세제도 발족 등을 통해 점차 통합을 강화하고 제도적 틀을 발전시키고 있다(CEPAL and IDB, 1998: 9-23).

안데스 공동체는 1989년에 갈라파고스 회담에서 경제통합의 공고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안데스그룹 전략계획(Diseño Estratégico del Grupo)을 발표한 이래 1990년 라파스 협정, 1991년 바라오나 협정, 1995년 키토협정, 1996년 트루히요 협정, 1997년 수크레 협정, 2002년 1월 산타크루스 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을 가속화 해왔다. 1993년부터 자유무역지대가 완전 출범되었고 1995년에는 대외공동관세가 발효되었으며 2003년말까지 페루를 제외한 관세동맹이 완성될 계획이다.²²⁾ 이러한 통합의 가속화와 함께 역내 무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카리브공동시장 또한 1980년대 기간동안 회원국들의 경제위기와 회원국간의 무역분쟁 그리고 역내 무역감소로 인해 통합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1989년 7월에 발표된 Grand Anse 선언에서 단일시장 창설을 위한 대외공동관세 개정 및 역내국간 노동력의 자

22) 안데스 공동체 발전 과정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www.comunidadandina.org에 나와 있으며 각 협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http://www.comunidadandina.org/ingles/treaties.htm>를 참조하십시오.

유로운 이동 등을 통해 통합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 투자기금의 창설과 각국의 국가표준국 신설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발전하고 있다.²³⁾

이상과 같은 제1차 지역주의의 소지역 경제통합체들 활성화는 미주지역의 전반적 경제통합 강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제 2차 지역주의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제 2차 지역주의의 특징은 경제통합체의 수적 급증과 다양한 쌍무 FTA의 증가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확대로 분석된다. 제 1차 지역주의에서 모두 6개의 경제통합체가 발효되었던 것에 비해 제2차 지역주의에서는 1985년 미국-이스라엘 FTA 이후 현재까지 총 27개의 경제통합체가 결성되었다. 그중 MERCOSUR 한 개의 관세동맹을 제외한 26개 통합체가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의 형태를 띠고 있어 1차에서 CACM, ANCOM, CARICOM 등의 관세동맹 형태의 소지역 경제통합이 주를 이룬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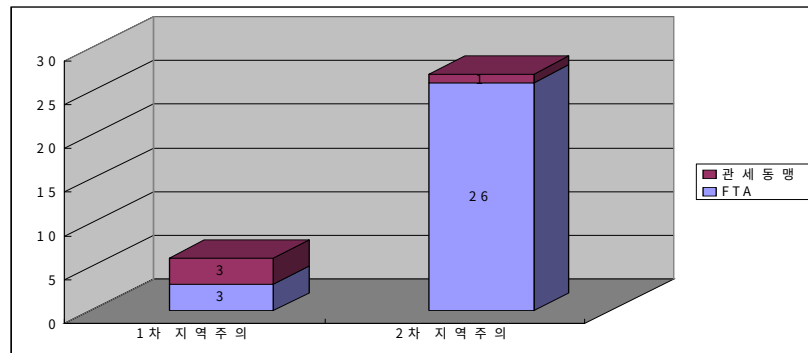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경향은 경제통합의 지역적 범주가 기존의 중남미 소지역 경제통합을 뛰어넘어 역외국가와의 FTA 결성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2차 지역주의 27개 통합체 중 11개가 유럽과 아시아 및 중동의 역외 국가들과 체결된 것이다. 그 중 미국 다음으로 주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교역 상대국인 EU가 가장 선호되는 역외 FTA 파트너가 되고 있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23) Grand Anse 선언의 내용 및 최근 신설된 카리브 공동체의 각종 제도는 www.caricom.org에서 참조할 수 있다.

24) 미주 지역의 2차 지역주의에서 FTA가 지배적인 경제통합 유형으로 채택된 것은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보다 정치적 경제적 합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관세동맹은 대외공동관세 (common external tariffs)를 채택하고 있어서 역외 무역 협상에서 신축성이 없고, CET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 대단한 부담이 되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 특히 CET는 경제 대국에 유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국이나 소국은 이에 같이 가담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를 포용하기위하여 CET가 높게 책정되어서 무역자유화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반면 FTA는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이라는 실무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CET가 없기 때문에 쉽게 체결될 수 있고 또 그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자국의 역외 관세율을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다. FTA의 이러한 이점 때문에 2차 통합체제는 FTA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쌍무 FTA협정을 통하여 경제통합을 확대할 수 있었다.

르, 한국, 대만 등이 역외국으로서 미주지역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다.

[그림 2] 미주지역 지역주의의 수적증가와 통합 유형별 분포



자료: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www.sice.or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www.usitc.gov,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미주지역 경제통합체의 급격한 수적 증가는 또한 Wonnacott(1996)이 제시한 Hub-Spoke 모델의 Hub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낳았다.²⁵⁾ 멕시코와 칠레가 그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들은 현재 미주대륙에서 역내외 국가들간에 형성되어 있는 많은 FTA 네트워크에서 중심 국가로 자리함으로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수출 시장 특혜 접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멕시코는 전 세계 32개국과 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도 일본, 파라과이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특혜 접근 시장이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로 확대되어 있어 미주대륙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통합체 네트워크의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칠레 또한 7개의 FTA를 미국, 캐나다, EU, EFTA, 멕시코, 한국 등과 체결하

25) Wonnacott은 중심국가(Hub)가 복수의 국가들(Spoke)과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Spoke 국가들의 시장에서 얻게 되는 특혜적 지위 및 경쟁우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Hub-Spoke 모형과 관련한 다른 논의로는 Wilkinson(1997)과 Lipsey(1997)를 참조하시오.

여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특혜접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칠레는 이외에도 제한된 형태의 특혜무역협정인 경제보완협정을 MERCOSUR,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과 체결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멕시코와 칠레이외에 미국이 본격적인 FTA 네트워크의 Hub 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에 6개의 FTA를 체결중인데 미주대륙에서는 현재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중미공동시장과의 FTA 이외에도 콜롬비아와도 2005년까지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 양자 FTA를 발효시키기로 최근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미국의 FTA 체결을 통한 Hub 국 발돋움 노력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현재 호주, 모로코, 남부 아프리카 5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바레인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 FTA 협상을 개시했고 미-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를 2013년 까지 체결할 것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줄릭 대표가 밝힌 바 있다.

제 2차 지역주의의 네 번째 특징은 GATT 24조 및 GATS 5조와 관련하여 WTO에 신고되는 경제의 전반적 자유화와 통합을 의미하는 자유무역협정 이외에도 중남미 국가들간에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에 근거한 부분협정인 상호경제보완협정의 체결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1980년에 체결된 몬테비데오 조약에 기반하여 출범한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은 통합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공동시장을 지향한다는 통합체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목표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내국들의 조화로운 경제발전임을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자유화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회원국간에 지역특혜관세, 지역무역협정, 부분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김우택, 1990). 회원국들은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 1차 지역주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협정의 한 형태인 경제보완협정을 제 2차 지역주의에서는 활발히 체결되고 있으며 각 협정은 자유화 정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⁶⁾

3. 미주지역 경제통합 발전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체는 1차와 2차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여 왔다. 경제통합의 성격 및 유형 그리고 범위에서 큰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다. 현재 미주지역에는 31개의 경제통합체가 결성되어 있으며 그 중 발효되어 운영 중인 것만 23개에 달한다.

<표 3> 미주지역 경제통합체 현황²⁷⁾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	합계	1차 지역주의	2차 지역주의
26(21) ²⁾	4	31(26) ¹⁾	6	27

자료: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www.sice.or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www.usitc.gov,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주 1): 총 31개의 미주지역 경제통합체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대륙 모든 국가들의 경제통합 협정 의미. 괄호안의 수치는 북미의 두 나라가 상호간에 그리고 역외국과 체결한 FTA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협정 수이다. 총 31개중 도미니카 공화국-CARICOM, CACM-파나마, 칠레-EU, 칠레-한국, 미국-싱가포르, 미국-칠레, 칠레-EFTA, 대만-파나마가 맺은 8개의 FTA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주2): 괄호안의 수치는 중남미 국가들이 체결한 FTA 수를 의미한다.

26) 2차 물결에 중남미 다수의 국가들이 LAIA를 언급하여 상호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협정들은 자유화의 수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칠레-볼리비아 협정은 협정문에 LAIA의 목적대로 역내 통합을 가속화 시키는 방안으로서 상호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한다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자유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 저개발국인 볼리비아를 위한 칠레의 일방적 자유화 품목이 명시되어 있고 상호 호혜적 자유화 품목이 있다. 그러나 칠레-MERCOSUR 협정의 경우 자유화가 더 광범위하고 자유화 일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10년 내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여 자유무역 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칠레-MERCOSUR와 브라질-ANCOM간 협정과 같이 FTA 바로 전단계로서 광범위한 자유화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WTO 규정에 의거하여 다자기구에 통보되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는 체결된 것은 2003년 8월 25일 서명된 페루-MERCOSUR 협정이다.

27) <표 3>에서 FTA 26개와 관세동맹 4개를 합하면 현재 미주지역에 결성되어 있는 총 31개의 경제통합체 수와 1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LAIA를 FTA에서 제했기 때문이다. LAIA는 첫째, 수권조항(Enabling Clause)를 통해 GATT에 통보(이경희, 2001: 16)되었으며, 둘째, 관세양허를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로 공동시장 유형의 통합을 자유화의 목표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체에 포함되지만, 통합방식이 달라서 FTA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주 경제통합체의 수적 증가 및 통합의 강화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새로운 경제통합체들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은 앞으로 두가지 방향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역내외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 결성과 이에 따른 전체 FTA 수의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소지역통합체의 경제통합 심화이다.

새로이 출현하게 될 미주지역 경제통합체중 규모와 의미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 평가된다. FTAA는 쿠바를 제외한 미주대륙의 34개국이 참여하는 범 대륙적 자유무역협정으로 200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전 대륙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세계의 경제통합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되면 그 경제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⁸⁾

FTAA는 이전에 미주대륙에서 체결되어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미주 지역에서 생성된 많은 경제통합체의 협상과 체결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축적한 경험과 Know-How 들이 FTAA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경제통합체들과 달리 FTAA는 협정문 초안의 선공개와 회원국간 의견조율을 통한 최종 협상안 타결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협정문 초안에 기반한 협상 방식은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협상국들은 민간부문이 FTAA 협상 과정과 진척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해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제통합체 역사에서 전무한 사례로서 앞으로 세계 여타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제 통

28)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의 역사는 1990년 6월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범미주자유무역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이 구상의 목표는 미주 국가들의 무역증대, 투자확대, 외채 경감 및 환경보호 강화였다. 이 제안의 결과로서 1994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미주 정상회담에서 34개국 정상들이 2005년까지 전미 대륙을 포괄한 FTA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FTAA가 추진되게 되었다. FTAA의 전반적 내용과 관련하여 GAO(2001)를 참조하시오.

합체 협상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로 자유무역협정이 포괄하는 경제 분야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FTAA는 제품 및 분야별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9개의 실무협상그룹, 3개 위원회, 1개 기술위원회, 1개 특별 그룹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시장접근, 투자, 서비스, 정부 구매, 분쟁해결, 농업, 지적재산권, 보조금·반덤핑·상계관세, 경쟁정책, 약소국, 시민사회, 전자상거래, 기구 제도, 비즈니스 원활화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간 경제관계와 경제통합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²⁹⁾

실질적으로 미주대륙의 모든 국가를 포괄하고 있는 FTAA의 출범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협상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어왔고 출범가능성에 대한 많은 전망이 행해졌다(정인교/권기수, 2001; Franko and Fauriol, 2000; Schott and Bergstein, 2001). 미주 지역의 경제통합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FTAA의 출범은 최근 2년동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첫째는 미국이 의회로부터 신속협상권을 부여받아 FTAA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진척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동안 미국의 입장과 상충되는 견해를 밝혀온 브라질과 남미국가들이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며 태도가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새로 부임한 물라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분석할 때 미국과의 합의 도출 전망이 이전보다 밝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정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최근인 2003년 9월 30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개최된 FTAA 무역협상위원회 회의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농업보조금과 반덤핑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사안별로 이견이 커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연합뉴스, 2003년 9월 16일자) 협상 진행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FTAA는 워낙에 많은 수의 회원국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력 격차를 지닌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의제와

29) www.ftaa-alca.org를 참조하시오.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국이라는 절대 비중을 지닌 시장을 두고 진행되는 협상이라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된 협상 방식의 제도적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의 종결 시점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FTAA가 전 미주 대륙의 국가들을 자유무역지대 수준에서 하나의 틀로 모으는 경제통합체인데 반해 기존의 소지역 경제통합체들은 자체 통합의 수준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멕시코는 얼마전 NAFTA 10주년을 맞아 NAFTA를 발전시키는 계획인 이른바 NAFTA-PLUS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현재 FTA 형태인 NAFTA를 EU식 통합틀로 전환하여 공동 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국경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 제한 없는 취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카날레스 경제부 장관은 폭스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의 두 정상과 이 문제를 논의하여 NAFTA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2003년 8월18일자). 그러나 국경개방을 통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동화폐의 도입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경제적 파장이 단순한 무역자유화와는 다르고 또한 북미 양국이 NAFTA 초기부터 이 문제에 유보 의견을 밝혀온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삼국은 10년차를 맞는 NAFTA의 긍정적 운영 성과에 공감하고 있으며 FTAA와는 별개로 NAFTA를 발전시키는 것에는 견해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NAFTA의 공고화와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2년 산타크루스 협정을 통해 대외공동관세 규정을 변경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동맹을 완성하여 가고 있다. 안데스공동체는 공동시장을 통합체의 궁극적 형태로 설정하여 왔지만 실제 통합 수준은 불완전 관세동맹에 머물렀다. 예외없는 신대외공동관세의 적용을 통해 관세동맹이 완성되면 2005년부터는 하나의 공동여권을 추진하고 지역내의 자유로운 인적이동을 추진하기로 제 13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다(외교통상부, 2002: 인터넷 자료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데스

공동체도 통합체의 지속적 강화에는 이견이 없어 회원국들의 역외국과 개별 FTA 추진과는 별개로 공동체 자체는 통합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MERCOSUR는 최근의 소지역 경제위기를 겪으며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 강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위기 초반에는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국제수지 악화방지를 위해 MERCOSUR 규정에 위배되는 보호무역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MERCOSUR 위기론이 대두되고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시장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었다. 그러나 역내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역내 국가들간에 MERCOSUR의 통합을 가속화시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경제통합체가 공고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ERCOSUR가 발전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MERCOSUR의 강화이며 두 번째는 남미공동시장³⁰⁾ 및 FTAA에 참여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관계 다변화의 문제이다. MERCOSUR는 통합의 심화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열린 제 24차 정상회의에서 브라질이 제안한 “목표 2006”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8월 15일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통합체가 공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관-국경통합, MERCOSUR 공동의회 창설, 새로운 통합질서 확립 및 공동시장 확립기반 마련, 아르헨티나가 제안한 MERCOSUR 화폐기관 창설 추진, 분쟁해결 재판소 설치 가속화와 같은 문제에 합의하였다(외교통상부, 2003: 인터넷 자료실). MERCOSUR도 안데스 공동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완전 관세동맹의 상태에서 진정한 공동시장으로 통합이 심화되는 전기가 마련되고 통합이 강화되

30) MERCOSUR와 안데스공동체가 체결하고자 하는 FTA로 인해 탄생하게 될 경제통합체를 지칭하는 가칭 ‘남미공동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 타결시한이 연기되어 왔다. 브라질이 의욕적으로 협상을 주도해 왔지만 소지역의 경제위기와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타결 연기가 몇 차례 이어져 왔다.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하고 있으며 FTA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안데스 공동체 국가들의 태도로 인해 MERCOSUR와의 협상 타결이 불확실 하기도 했지만 양측은 올해인 2003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며 최근 8월 4일에 개최된 양측간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며 양측 모두 연말 협상타결을 공표하고 있다.

는 방향으로 통합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 미주 지역의 단일한 경제통합체인 FTAA 발족 전망 및 기존의 소지역 경제통합체의 통합 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현재 미주지역에는 많은 새로운 경제통합체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운 경제통합체들은 미주지역에서 경제통합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경제통합체의 급격한 수적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멕시코, MERCOSUR 와 같은 국가나 기존 통합체들이 소지역통합체의 수준에서 새로운 통합체나 국가와 FTA를 맺는 것을 비롯해 개별 회원국들이 또한 독자적으로 여러개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미주지역 국가들이 역내국가 및 역외국가들과 폭넓게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역내국가들 간에 진행중인 협상으로는 이미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MERCOSUR-ANCOM, 미국-중미공동시장, 파나마-중미공동시장, 파라과이-멕시코 간의 FTA 협상과 협상이 최근 시작되거나 곧 시작될 미국-도미니카 공화국, 미국-콜롬비아 FTA가 있다. 역외국가와의 협상은 일본-멕시코, MERCOSUR-EU,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등의 협상이 있다.

이와 같은 협정들은 미주지역에서 경제통합이 1차 지역주의의 소지역경제통합체 중심, 2차지역주의의 쌍무 FTA 급증에서 앞으로는 다차원적 미주 경제통합의 시기가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1960년에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으로부터 시작된 미주지역 국가간의 공식적 시장통합이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경제통합체의 수와 규모 그리고 내용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중남미 소지역 중심으로 형성되던 경제통합이 이제는 미주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과의 대륙간 경제통합으로 발

전하였다.

전반적으로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은 세계 경제의 경제통합과 흐름을 같이 하며 진행되어 왔으며 1차와 2차 지역주의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여줬다.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과 후신인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으로 대변되는 중남미 전역의 경제통합 노력과 CACM, ANCOM, CARICOM과 같이 공동시장을 지향하는 관세동맹 형태의 소지역 경제통합체 형성이 1차 지역주의를 특징지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활발했던 제 1차 중남미 지역주의는 완전한 시장통합에 의한 경제의 효율성 증대와 수출증가 그리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위적이며 보호무역주의적인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구된 시장통합이었다. 따라서 통합 메커니즘도 회원국간의 추후 협상에 의한 관세양허 방식과 제한된 자유화의 통합방식이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결국 당시의 경제통합체들이 역내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각국의 보호 장벽 강화로 통합이 정체되고 기능이 정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현한 제2차 지역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지역 경제통합이 미주대륙 전체로 확산되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경제통합의 목표와 방식이 바뀌었다.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모델로 바뀌면서 수출 진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시장통합이 시행되었다. 셋째로는 이전의 무역자유화에 국한되던 경제통합이 투자, 서비스, 정부구매 등의 경제관계의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게 되고 완전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통합체도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기구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 넷째로는 1차 때의 소지역 관세동맹 방식의 통합유형이 양자간 FTA의 확대와 함께 급격한 수적 증가를 이룩하였다. 6개에 불과하던 1차 지역주의 통합체 수가 2차에서는 27개가 체결되었고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역내 통합을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의 역외 국가들과의 통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제 미주 지역에서 경제통합은 새로운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경제통합이 지금 수렴과 발산의 양방향으로 진행 중

이기 때문이다. 수렴이라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과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이 이룩하지 못했던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이 북미 2개국까지 포함한 미주자유무역지대로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전 미주 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단일 경제통합체로 미주 경제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경제통합 본래의 경제적 효과와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주 지역 경제통합 역사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현재 협상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견들의 심화로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Baldwin(1999)이 경제통합의 메커니즘으로 지적한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기타 쌍무 협정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발산현상이라는 것은 2차 지역주의 이래 현재의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이 다차원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통합체인 FTAA로 전 미주 대륙의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 이외에도 NAFTA, MERCOSUR, ANCOM, CACM 과 같은 기존 소지역 경제통합체들은 공동시장 유형으로 통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기존 통합체들은 MERCOSUR-ANCOM 의 경우에서 보듯이 블록 별 통합도 실시하고 이들 경제 블록에 속한 회원국들은 상기 과정과 병행하여 역내외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개별 쌍무 FTA 체결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차원적이며 동시다발적 경제통합 결성 동향과 현상이 현 미주지역 경제통합을 특징짓고 있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는 미주 경제통합을 세계 경제통합의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지역주의의 중남미 소지역 경제통합이 2차에서는 미주 대륙 전체로 확산되었듯이 현재의 경제통합 동향을 볼 때 앞으로 펼쳐질 3차 지역주의 물결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통합이 세계의 경제통합으로 확대될 것을 전망케 한다.

Abstract

The history of Latin America's economic integration, which started with Latin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in 1960, now stands at its turning point since it's evolving at very multi-dimensional levels. The first wave of regionalism in the America was limited geographically to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its form of trade blocs was in every case the subregional customs union. However, the second gener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shows many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first gener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s economic integration history, and presents prospect for its further development paths.

Key Words: America, Economic Integration, Regionalism, Latin Americ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미주, 경제통합, 지역주의, 라틴아메리카, 미주자유무역지대

논문투고일자: 2004. 1. 3

게재확정일자: 2004. 2. 13

참고문헌

- 김기수(1996), □미국통상정책의 이해; 국제 정치경제적 접근□, 세종연구소.
- 김상겸(1993), □NAFTA의 출범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19.
- 김세원(1996), 「경제통합의 이론체계와 현실」, in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박영사, pp. 3-34.
- 김우택(1990),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IA)을 통한 라틴아메리카에의 접근」, 중남미 문제 연구, Vol. 6, No. 1, pp. 9-25.
- 김원호 외(1997),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12.
- 김중렬/권원순(1998), 「지역주의의 새로운 추세」, 국제지역연구, Vol. 2, No. 2, pp. 22-46.
- 노재봉(2002),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세종연구소 특별정책브리핑 2002-03.
- 문남권(2002),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의 발전과 구성」, 중남미 연구, No. 21, pp. 3-16.
- 박성훈(1998),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98-9.
- 박영호(1995), □중미공동시장(CACM) 및 회원국별 경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보고, 95-07.
- 박희종(1996),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전망」, 경제논총 No. 13,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http://eri.mju.ac.kr/data/13-3.hwp>
- 윤현덕(200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0-16.
- 이경희(2001), 「지역무역협정(RTA)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세계경제 2001년 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24.
- 정인교(1998),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 원, 정책보고서 98-16.
- 정인교/권기수(200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국제지역연구, Vol. 5권, No. 2, pp. 29-56.
- Andean Community(1999), *How to do Business in the Andean Community: Trade and Investment Guide*, Peru: Andean Community.
- Balassa, Bela and Associates(1971),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aldwin, Richard E.(1999),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in Jagdish Bhagwati(ed), *Trading Blocs,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pp. 479-502.
- Bancomext(1964), *Misión a ALALC*, Mexico: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 Cable, Vincent and David Henderson(1994), *Trade Blocs?: The Future of Regional Integra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Cardoso, Eliana and Ann Helwege(1995), *Latin America's Economy: Diversity, Trends, and Conflict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Carrera, Jorge and Federico Sturzenegger(2000), *Coordinación de Políticas Macroeconómicas en el Mercosur*, Argentina: FCE.
- CEPAL(1994), *El Regionalismo Abiert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hile: UN.
- _____(2001), *Panorama de la Inserción Internacion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hile: UN.
- CEPAL and IDB(1998),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y la Institucionalidad Regional*, Mexico: CEPAL and IDB.
- Clement, Norris C. et al.(1999), *North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 Comunidad Andina(2003), “34 Años de Integración Comercial 1969-

- 2002”, Documento Estadístico, www.comunidadandina.org
- Deardorff, Alan and Robert Stern(1994), *Analytical and Negotiationg Issu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iaz Müller, Luis and Gabriel Gutierrez Pantoja(1983), *América Latina: Integración y Crisis Mundial*, Mexico: Presencia Latinoamericana S.A.
- Edwards, Sebastian(1995), *Crisis and Reform in Latin America*,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 Estevadeordal, Antoni and Carolyn Robert(2001), *Las Americas sin Barreras*, Washington D.C.: IDB.
- Franco, Patrice M. and Georges A. Fauriol(2000), *Toward a New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America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FTA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Furtado, Celso(1991), *La Economía Latinoamericana: Formación Histórica y Problemas Contemporánea*, 22a ed., Mexico: Siglo Veintiuno.
- GAO(2001),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 Grien, Raúl(1994), *La Integración Económica como Alternativa Inédita para América Latina*, Mexico: FCE.
- IDB(1969), *Factores para la Integración Latinoamericana*, Mexico: FCE.
- Instituto Interamericano de Estudios Jurídicos Internacionales(1964), *Instrumentos Relativos a la Integración Económica en América Latina*, Washington D.C.: Instituto Interamericano de Estudios Jurídicos Internacionales.
- Johnson, Harry(1962),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London: Allen & Unwin.
- Krugman, Paul(1993),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Analytical

- Notes”, in De Melo and Panagariya,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79.
- Lipsey, Richard A.(1997), “NAFTA as a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 Lessons and Issues for Latin America”, in Richard Lipsey and Meller Patricio(eds), *Western Hemisphere Trade Integration: A Canadian-Latin American Dialogue*,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249-262.
- Lucía Lozano, Olga(2001), “Del Acuerdo de Cartagena al Establecimiento de la Comunidad Andina”, in Antoni Estevadeordal and Carolyn Robert, *Las Americas sin Barreras*, Washington D.C.: IDB, pp. 143-162.
- Machlup, Fritz(1977), *A History of Thought on Economic Integr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undell, Robert(1964), “Tariff Preference and the Terms of Trad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32, pp. 1-13.
- Schott, Jeffrey J. and C. Fred Bergstein(2001), *Prospects for Free Trade in the America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hatz, Howard J.(2001), *Expand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ndean Countries*, CID Working Paper No. 64.,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 Spero, Joan Edelman(1997),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 Twomey, Michael J.(1993),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onnecticut: Praeger.
- Wilkinson, Bruce W.(1997), “NAFTA in the World Economy: Lessons and Issues for Latin America” in Richard Lipsey and Meller Patricio(eds), *Western Hemisphere Trade Integration: A*

- Canadian-Latin American Dialogue*,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30-57.
- Witker V., Jorge(1981), *L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 Mexico: Editorial Cuma.
- Wionczek, Miguel S.(1979), *Integración de América Latina: Experiencias y Perspectivas*, Me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Wobeser, Claus Von(2000), “El Régimen Legal de la Inversión Extranjera en el TLCAN”, in Leycegui, Beatriz, *¿Socios Naturales?*, Mexico: ITAM, pp. 225-282.
- Wonnacott, Ronald J.(1996), “Trade and Investment in Hub and Spoke System versus a Free Trade Area”, *The World Economy*, Vol. 19 No. 3, pp. 237-252.
- World Bank(2000), *Trade Blo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참조 인터넷 사이트

두산세계대백과사전, www.encyber.com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www.aladi.org

The Carribbean Community, www.caricom.org

Comunidad Andina, www.comunidadandina.org

Foreign Trading Information System, www.sice.org

FTAA, www.ftaa-alca.org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ww.iadb.org

MERCOSUR, www.mercosur.org.u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ww.usitc.gov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